

地域農業의 組織化에 관한 研究*

姜 景 璿**

目 次

- | | |
|----------------------|----------------------|
| I. 序 | (4) 個別經營의 補完·補強體系 |
| II. 農業經營의 成長 | — 生産(者) 組織 |
| (1) 農業經營의 變貌 | IV. 地域農業의 組織化 |
| (2) 農業經營의 成長 | (1) 地域農業組織의 實態認識 |
| (3) 商業的 家族農業經營에의 指向 | (2) 地域農業經營의 確立 |
| III. 農業에 있어서의 企業者 活動 | (3) 組織化의 接近理論 |
| (1) 農業經營의 二重構造와 經營主體 | (4) 組織化의 主體, 機能 및 構成 |
| (2) 農業經營者論의 當面課題 | V. 結 語 |
| (3) 農業經營者의 思考와 行動樣式 | |

I. 序

한국의 농업은 70년대 후반 이래 “轉形期”에 놓여 있다고들 종종 논의되어지곤 한다. 어찌서 “轉形期”라고 하고 있는지는 — 그 要因은 論者에 따라 달리하겠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狀況(要因)에서 “轉形期”로 보고 이를 극복하는 體系(基本的 方向)는 무엇인지를 대략 검토해 보았다. 즉 ① 歷史以來 惰性態였던 人口障壁이 무너지고 있다는 點 — 農村勞動力의 大流出이 誘發되고 있다는 점에서, ② 農地改革以來 農民의 自作農耕制가 內外要因에 의해 크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③ 自給自足的 性格에서 資本投入增大 및 商品經濟의 논리

* 이 논문은 1985년도 문교부 학술연구 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農科大學 農業經濟學科 副教授

에 따라 商業的 家族農業經營의 전개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④ 또한 開放農政의 전개와 식량자급율의 저하라는 점에서 “轉形期”에 서 있다고 보고자 함이다. 이러한에 따라 농업도 하나의 산업으로서 生産性向上, 經營의 合理化, 近代化, 利潤追求를 促求하고 있음은 엄연한 사실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狀況에서 새로운 創出, 말하자면 姿態變換 (metamorphose)의 方向과 方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크게 주어진다. 그것도 농업내부에서의 自律的인 (bottom-up) — 內發的인 발전방향의 모색인 것이다.

어쩌면 當爲的인 표현인지도 모르나 일단 商業的 家族農業經營을 想定하여 농업에 있어서도 自主性에 기초하는 entrepreneurship (企業力 또는 企業者活動)을 키워나가 經營主體를 확립케 하는 방향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밀받침 해 줄 수 있는 方法으로서는 專業的 核心의 個別經營을 존립케 하는 (補完·補強하는) 生産(者)組織을, 그리고 더욱 나아가서 個別經營 및 生産(者)組織을 補完하는 地域農業의 system化를 찾아보았다.

사실 오늘날의 産業社會 — 컴퓨터時代에 직면하여 原子論的 (atomic)이었던 농업생산을 補完·補強하는 生産(者)組織, 이를 subsystem으로 하는 地域農業 system化는 주요 方法論이라 생각된다.

본 소론은 1980년의 “農業生産組織에 관한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지역농업의 system化 — 組織化 문제를 經營主體의 확립에 관련하면서 이론적으로 검토되었다. 앞으로 더욱 진행되어야 할 분야는 生産(者)組織과 마을(부락)과의 관계에서 이론적 또는 실증적인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며 流通組織의 문제가 또한 검토되어야 할 과제로 아직 남고 있다.

Ⅱ. 農業經營의 成長

(1) 農業經營의 변모

地主·小作制下에서의 農家は 사실 半生産者로서 농업경영을 自己發展的으로 經營하는 主體는 아니었다. 農地改革에 따라 自作農이 創設되었으나 규모확대 등 경영의 内部構造를 안정적으로 확립하는 계기까지에는 이르지 못했다. 60년대 이후 식량증산정책하에서는 單位當 收量增加 등은 있었지만 農業經營의 主體形成 確立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후 「農業基本法」의 制定(1967)에 따라 自立經營農家の 육성 등이 주요한 목표였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기 어렵다.

국민경제의 고도성장 과정에서도 傳統的인 농업생산 기반하에서 영세한 가족농업은 西歐의

小家族經營 (small-scale family farm)에 비하면 아직도 過小農의 성격 이어서 經營主는 管理者로서의 經營者 機能을 발휘할 만큼의 여지가 없다. 사실 말하자면 經營純收益을 추구하는 family farm 또는 viable farm (自立農家)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발견키 어렵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농산물의 소비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商業的 農業에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경영의 집약화를 위한 作目과 技術의 선택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끔 되어 그 담당자로서의 經營者 役割이 중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러한 與件變化에 따라 발전의 계기가 되려면 主體的으로 對應하는 革新 (innovation)이 있어야 된다.¹⁾ 산업으로서의 농업 또한 농업경영의 발전을 생각할 때 말할 것도 없이 그 主體的 契機는 기술혁신, 수요창조 등 marketing 上的 혁신, 조직혁신에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 農業의 변모과정은 個別經營主體的 확립을 釀成하지 않은 채 推移를 경과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所得均衡을 위한 價格政策 등 對症療法보다도 농업경영의 自立的 體形, 體質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本質이라고 생각된다.

(2) 農業經營의 성장

농업경영의 성장이란 生産力의 擴大와 그 内部化라고 말할 수 있으며 2가지 과정이 있다.²⁾ 하나는 주어진 條件을 그대로 固定的으로 보아 그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 한 合理化를 꾀하려는 것으로서, 合理化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고, 둘째는 外部條件을 적극적으로 内部化하여 經營활동으로서의 合理化 活動의 余地 혹은 範圍空間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것을 經營擴大의 길이라 말할 수 있다.³⁾

이 外部條件의 内部化 擔當者는 農業内部者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 内部構成者는 농업자 개인뿐만 아니라 농업자 조직까지를 포함하므로 구체적으로는 생산자 조직체 — 농협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농업경영의 성장이란 되풀이되는 바이지만 農業經營의 두가지 側面(圖의 그림 1, 2 참조) — 收益性과 生産性 —에 따라 生産性(生産, 流通)의 擴大成長에 밀받침되면서 이것을 内部化하여 收益性으로 연결시키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生産力과 收益性과의 관계를 일반적으로 말하면 私經濟로서의 收益性을 重視하면서 ① 농업경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内部管理 — 內的條件과 ② 농업경영이 직면하는 환경, 外部條件과를 여하히 統合할 것인

1) J.Schumpeter는 革新의 대강을 세가지 局面에서 말해주고 있다. 즉 첫째는 기술혁신이고, 둘째는 수요창조 등 marketing 상의 혁신이며, 세째는 組織革新이다: 東畑精一譯: 「經濟發展의 理論」, 岩波書店, 1977, p.80.

2) 金澤夏樹: 「農業經營と 政策」, 地球社, 1985, p.288.

3) F.Aereboe는 農業經營의 要諦를 Spielraum 즉 活動空間의 확대에 두고 있다.

가에 있다. 특히 농업경영의 성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内部管理의 充實과 관련시켜 外部條件 그 자체의 내부화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있다. 4) 内部活動이란 농업경영의 기본목적에 따라 스스로 처리가 가능한 경영활동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農業經營의 内部構成者(農業者 및 그의 組織)가 그 경영목적에 따라 外部條件을 内部化하면서 스스로 經營活動의 범위를 自立的으로 확대해 나가는 體系의인 전략이 필요하다. 5)

그런데 농업은 어떠한가 지금까지의 농업생산자는 生産者이기는 하였지만 經營者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즉 그것은 外部經濟를 内部經濟화한다는 논리마저 갖기 어려웠다 함이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體系 즉 個別企業 ↔ 産業部門 ↔ 産業體系의 重層的인 관계에서 볼 때 農業에 있어서는 個別農業生産者 ↔ 農業部門 ↔ 國民經濟 體系가 個別農業生産者 ← 國民經濟 관계가 성립되어 個別農業生産者와 國民經濟와의 기능상 仲介役이었던 산업으로서의 농업부문이 弱體化되어 있다. 이것은 個別經營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농업부문」이라는 外部經濟가 弱體化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농업부문」으로서의 中間組織體 6)를 形成·強化하여 이를 다시 内部經濟화하는 經營論理가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内部經濟의 擴充 強化에 필요한 外部經濟를 農業自體内에서 형성케 하여 일반기업과 같이 組織體로서 對外均衡과 對內均衡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7)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需給調整(需給政策)이라는 「物的」- 作目中心(commodity-oriented agricultural policy)에서 「經營」- 農家中心(farm household-oriented agricultural policy)이라는 農業經營體 - 農業經營者를 육성·강화하는 構造政策 8)이 요구된다.

4) 일반 企業에 있어서 對內均衡과 對外均衡을 종종 논의하는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가격의 변화나 생산기술의 진보 등 組織外的인 요소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對外均衡이고 이들 組織外的인 要素를 與件으로 하여 일정하다고 보아 組織內的인 適應(adaptation)을 시도하는 것이 對內均衡인데 원래 企業은 그 존속발전을 위해 양자의 균형을 함께 요구한다. 그런데 이 두가지의 균형은 서로 다른 것으로서 A. Marshall 에 따르면 對外均衡이란 外部經濟에 관계되는 것이고 對內均衡은 内部經濟에 관계된다. 企業의 존속발전을 위해서는 外部經濟를 内部經濟內로 끌어들이어 어느정도 그것을 内部經濟化的 擴大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5) 金澤夏樹: 前掲書, p.283.

6) 外部化한 内部經濟를 再次 内部經濟로 組織하는 것을 「中間組織體」라 한다면(高橋正郎: 「日本農業의 組織의 研究」, 東大出版會, 1973, pp.4~5) 일단은 「지역을 단위로 하여 성립하는 농업자의 조직체로서 농협과 行政體, 생산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는 地域 system」을 中間組織體라 할 수 있는데 본래의 内部經濟를 組織化할 수 있으므로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과정이, 또 농가나 관계 계기관에 분산된 諸機能이 Integrate 되어 經營機能이 體系化될 수 있다.

7) 第二次産業部門에서는 産業部門과 최하층으로서의 企業과의 사이가 밀착되어 있어 外部經濟를 企業者 自身の 内部經濟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을뿐만 아니라 外部經濟로서의 「産業部門」이 확립되어 있다.

8) 일반적으로 農政은 需給政策과 構造政策으로 이루어진다. 수급정책은 物理的인 측면으로서는 생산정책이고 경제적 측면으로서는 價格政策이 된다. 한편 구조정책이란 擔當者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主題로 하여 농업담당자의 경제적, 사회적 존립조건을 검토를 主題로 삼는다. 구조정책은 개개의 경제주체가 경제적으로나 능력적으로도 自立하여 自律的으로 농업의 内部的인 推進力을 傾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령 需給政策을 「物」의 政策이라는 점에 대비할 수 있다면 構造政策은 擔當者로서의 「人」의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金澤夏樹: 前掲書, pp.233~238.

(3) 商業的 家族農業經營에의 指向

먼저 농업구조 변화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 변화의 요인은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는데 요인이란 바로 새로운 성격의 생산주체를 요구하고 主體間的 경쟁력에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라고 이해되고 있다.⁹⁾

첫째, 농업구조 변화는 기본적으로 經濟社會의 발전에 의하여 규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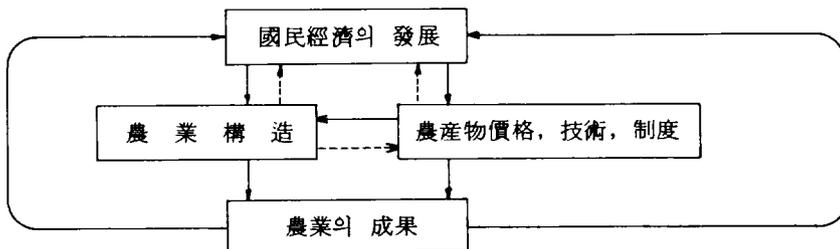
농업구조를 변화시키는 두번째 요인은 기술이다. 기술은 규모의 경제성을 결정하고 전문화의 유리성을 결정하며 자본소요량을 변화시켜 새로운 생산단위의 침입을 규제하기도 하고 기존 主體의 생산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역시 生産主體間的 경쟁력에 변화를 일으킨다.

농업구조를 변화시키는 세번째 요인은 가격이다. 가령 농산물 가격의 전반적 하락은 小規模 農家로 하여금 兼業化를 불가피하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高農產物 價格이 兼業農家를 溫存시키기도 한다.

네번째 요인은 制度이다. 대부분의 制度는 특정한 성격의 생산주체를 억제 혹은 고무할 目的을 갖는 것이 보통이므로 제도는 농업구조를 변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 농업구조, 경제발전, 가격, 기술, 제도 그리고 농업의 성과와의 관계를 圖式으로 要約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농업의 성과(performance)는 농업구조, 가격, 기술 그리고 제도 등 네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한편 농업구조는 경제발전, 가격, 기술 그리고 제도 등 네가지 요인에 의하여 변화되며 동시에 이들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림 1> 農業構造理論의 基本體系



9) 李貞煥·金殷淳: 「農地 및 勞動의 流動性과 農業構造政策」,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pp.22 ~ 24.

위와같은 與件變化라는 全體的 흐름의 要因과 결부되어 小農經營(家族農業經營)의 質的變化에 미치는 要因들은 어떤 것들이며 거기에서 나타나는 經營形態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

우선 문제로 되는 것은 家族勞動力의 個로서의 自立化이고 이에 따른 勞賃概念의 일반적 형성·확립이다.¹⁰⁾

둘째의 중요한 요인은 上記한 두번째 요인(기술)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농업기술의 고도화 특히 기계화의 눈부신 진전이다. 그리하여 고용노동의 배제, 농업투자의 증대와 多額化, 借入資本의 增大와 그 比重增加, 金融市場과 交流擴大 등을 필연적으로 파생케 한다. 또한 小農經營=生産力競爭과 農民層 分解過程에서 농업기술이 발달·고도화하고 대동물·대식물 등의 生産高度화와 集約化, 여기에다 기계, 시설, 설비 등의 농업자본 투자액의 증대와 그에 따른 資本集約化, 高度화가 진행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세째로 小農을 둘러싼 土地市場의 擴大이다. 이것은 小農으로서 農地의 購入·借入에 의한 경영규모 확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다음(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農地의 貸借關係·小作關係를 일반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은 사실이다.

(표 1) 賃貸借 農家の 増加趨勢

	農家戶數(千戶)	賃借農家比率(%)	賃借農數(千戶)	賃貸借農地比率(%)
1960 ¹⁾	2,350	26.2	616	11.2
1970 ²⁾	2,483	33.5	832	17.6
1981 ³⁾	2,030	46.4	942	22.3

註：賃借農家戶數는 總農家數×賃借農家比率에 의하여 推算

資料：1) 農水産部, 「1960 農業センサス」, 1964.

2) _____, 「1970 農業センサス」, 1974.

3) _____, 「1980 農業センサス」, 1982.

60년대 이후 농지의 賃貸借實態를 보면 60년부터 81년 사이 賃貸借農家比率은 26.2%에서 46.4%로, 賃貸借農地比率은 11.2%에서 22.3%로 각각 늘어나는 등 法的 禁止에도 불구하고 賃貸借에 의한 農地流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¹¹⁾

10) 우리나라는 家父長的 家族制度에 영향되어 農家에 있어서의 自家勞動=家族勞動力은 지금까지 강기간 無償으로 여겨왔으나 商業的 農業의 발달과 농가노동력을 둘러싼 農外就業의 확대는 농가의 자가노동력 평가와 가족노동력에 대한 임금형태의 확립이 촉구된다.

11) 李貞煥·金殷淳：前掲書，p.12.

이상과 같은 農業內外的인 요인은 商業的 家族農業經營(本格的인 小商品生産農業經營)¹²⁾의 확립을 촉진시켜 주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企業的 家族農業經營(企業的 小農經營)¹³⁾이 추구될 수도 있으나 長期趨勢의 한 방향일 따름이다.

그런데 이러한 商業的 家族農業經營의 형성·발전에는 여러가지 不安定性이 주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는 自律的인 체제로서는 제 3장에서 經營者機能 - 經營主體形成의 문제를, 제 4장에서는 地域農業의 組織化 문제를 검토코자 한다. 이것은 바로 個別農業生産者의 育成·強化 → 農業이라는 產業의 實體形成, 즉 bottom-up와 같은 접근이다.

Ⅲ. 農業에 있어서의 企業者活動

(1) 農業經營의 二重構造와 經營主體

① 農業經營의 二重構造

農業經營이란 個別經濟로써 ① 企業과 經營이라는 兩側面的의 相互關聯, ② 技術과 經濟의 相互交涉이라는 視點에서 二重構造를 갖는 意志經濟라 할 수 있다.¹⁴⁾ 그러면 먼저 前者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經營이라 할 때 이것을 「企業」에 對置하여 技術組織으로, 또는 生産單位로도 볼 수 있어 보다 多義的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어느쪽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圖示하면 다음과 같다.

個別經濟로서의	{	企業 (= 財務單位 혹은 所有單位)
農業經營 (經營 I)		經營 II (= 生産單位) {
		業務
		經營 III (作業組織)

12) 家族經營으로써 商品生産의 일층 확대·심화로 商品生産論理가 全農業經營에 점차 과급된다. 自給部門의 地位와 意義는 저하하고, 그것도 상품경제 논리에 의해 합리적으로 규정·지배되어 比較有利性 計算原則(Principle of Comparative Advantage)이 작용된다. 그럼으로써 농업경영의 전문화 내지 합리적 복합화가 진행되고 또한 농업기술=생산력 수준이 향상되어 기계화의 체계적 발전이 뚜렷하다. 自家勞動評價가 차츰 의식적으로 성장·전개되며 價値法則이 작용·진전하지만 여기에서는 가족전체로서의 생활수준=생계비의 연간총액=총소득 절대액의 추구가 중심이고 아직 利潤·地代部分을 분리·독립시키지 못하고 「混合所得」단계이다.

한편 한국농업에 있어서(自給基調的인) 小商品 生産經營을 지향하는 전환점은 1968~71년 사이에 일어났다.

13) 資本型 家族經營으로서 사실상 노임·이윤·지대의 세가지 범주를 한정적인 의미이기는 하나 機能的으로 分化·自立化한다. 또한 농업경영의 목표는 단순한 소득추구를 넘어서 「純收益」=利潤을 追求하게 된다. 즉 가족경영이기는 하나 經營行動은 企業의 原理와 거의 같다. 이러한 型은 미국의 가족경영이 대부분이며 小企業農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14) 金澤夏樹著: 신동완·강경선역: 「農業經營學講義」, 풀빛, 1985, pp.43~46. 農業經營의 二重構造論에 대해 자세한 것은 金澤夏樹編: 「農業經營學의 體系」, 地球社, 1980. 및 磯邊秀俊: 「農業經營學」, 養賢堂, 1973. 을 참조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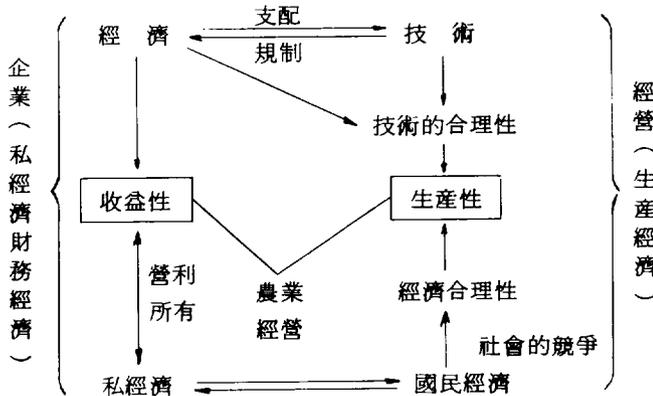
우선 經營Ⅲ은 협의의 생산과정으로서 作業組織이라 말할 수 있고, 經營Ⅱ는 生産單位, 生産經濟로서 파악하여 技術效率에 밀반침된 價値表示로서의 經濟性이 문제된다.

經營Ⅰ은 生産單位와 財務單位(所有單位)의 統一體로서의 個別經濟이다.

다음은 後者에 관한 설명인데 <그림 2>는 농업경영의 「經營과 企業」에 관련된 「技術과 經濟의 相互交渉」 및 「私經濟와 國民經濟의 相互交渉」의 관계이다. 즉 生産性和 收益性이라는 二重의 把握인 것이다.

이와같이 經營의 二重構造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의 個別經濟는 하나의 私經濟單位임과 동시에 機能的 生産單位이고 營利經濟로서의 私經濟單位이지만 社會的 生産力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되는 技術的 單位이기도 한 것이다. 즉 個別私經濟的 「個」와 社會的 「個」의 兩側面을 개별경제는 갖고 있다. 또한 個別經濟는 持續性을 필요로 하므로 營利性을 追求하게 되어도 그것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社會的 生産力과의 관계에 注目하여 다른 個別經濟와의 경쟁, 협조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個別經濟의 활동이란 이와같은 二面性에 따라 收益性和 生産性을 서로 교섭케 하면서 지속적으로 收益體로서의 농업경영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

<그림 2> 「技術과 經濟」 및 「國民經濟와 私經濟」의 관계



② 經營主體論의 탄생

일반적으로 企業이 갖고 있는 對內均衡, 對外均衡이라는 二重의 문제도 上記한 二重構造에 대응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생산성과 수익성, 장기적 대응과 단기적 대응, 개별이용과 公共利用, 内部經濟와 外部經濟 등 여러가지 면에 관련시킬 수 있으며 이것은 마치 個와 全體,

主體와 客體를 연결짓는 방법적 가능성을 갖는다.

즉, 外部條件을 內部化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을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될 때 (外部條件의 內部化 活動은 농업경영의 固有活動이라 할 수 있음) 말할것도 없이 經營主體는 內部調整 뿐만 아니라 對外關係의 調整·改變過程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에 經營主體 — 人格의 表象으로서의 經營者—가 품고 있는 經營理念¹⁵⁾은 經營의 二重의 側面을 통일하는 指導理念으로서 行爲를 規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테면 生産性和 收益性的 二重性에서 어떤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도입에 의한 기술적 혁신이 현재의 生産構造에 미치는 영향과 동시에 經濟的 價值的인 영향, 이들에 의한 經營構造總體에의 의미 변화 즉 生産성과 수익성이 가져오는 변화를 판단하여 一定의 선택을 행하는 것이 經營者가 해야 할 과제이다.

II 장 농업경영의 성장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농업경영은 여하히 生産力에 基礎하면서 技術에 方向을 부여하여 이것을 收益성에 결부시켜 나가느냐인 것으로써, 다시 말해서 外部條件을 어떠한 방법으로 個로서의 內部條件으로 轉化시킬 것인가 하는 兩方向에의 運動連鎖를 經營主體가 「移行」할 때 참된 Identity (主體性)가 있게 된다.

결국은 앞에서 지적한 經營의 二重構造를 統一體로서 體現하는 經營主體, 그 人格의 表象으로서의 農業經營者가 提起되며 바로 여기에서 經營主體論 — 農業經營者論을 탄생시키는 하나의 발판을 발견케 해주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2) 農業經營者論의 當面課題

韓國의 農業은 이제 苦惱하고 있다. 그것도 말하자면 “姿態變換(metamorphose)”을 위한 方向(存在形態)과 方法을 찾는 “轉形期”로서의 苦惱인 것이다. 바로 여기에 “轉形期”를 극복할 수 있는 農業經營]의 創出이라는 당면의 과제에 답변할 수 있는 방법론이 강구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存在形態”와 “方法”의 실천적 통일자인 “經營主體”¹⁶⁾가 어떠한 理念과 實踐의 樣式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밝히는, 마치 歷史를 형성하는 主體로서의 人間=經營者論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 우선 현시점을 “轉形期”라 지칭하게 되는 요인을 두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5) 그 자체의 뜻은 經營者 스스로가 指導理念으로 하여 一定의 社會的 客觀性을 갖춘 理念이라 할 수 있다.

16) 經營主體(management unit)란 생산·판매·구매·소비라는 경제활동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의 경제행위에 대하여,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단하는 행위를 하는, 統一的 意志를 갖고 있는 行爲者를 말한다. 경제주체는 반드시 自然人으로서의 各 個人에 한정하지 않고 企業·公共團體, 國家 등이 하나의 統一的 意志를 가지고 경제행위를 할 때는 하나의 경제주체가 될 수 있다. 農政調査委員會編: 體系農業百科辭典(農業經營), 1965, p.239.

첫째, 한국농업이 오랜동안 하나의 惰性態 (inertia)로 지너온 「農業人口의 障壁」이 經濟의 構造的 變化에 유발되어 무너지기 시작하여 농업노동력의 大流出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農家人口와 戶數는 1967년까지 증가추세에 있었으나 1968년부터 절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農家戶數 및 農家人口는 1965년만 해도 전체에 대하여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계속 감소하여 농가인구의 경우 (1984년) 총인구의 22.2%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표 2) 農家人口의 變動推移

單位：千戶，千名，%

	1965	1970	1975	1980	1984
農 家 戶 數	2,507 (51.7) ¹⁾	2,483 (42.4)	2,379 (35.2)	2,155 (27.1)	1,944 (-)
農 家 人 口	15,812 (55.1) ²⁾	14,422 (44.7)	13,244 (37.5)	10,827 (28.4)	9,015 (22.2)
農 林 業 就 業 人 口	-	4,826 (49.5) ³⁾	5,123 (43.3)	4,433 (32.3)	3,726 (25.8)

資料：農水産部，「農林水産統計年報」，1985.

- 註：1) 總家口數에 대한 農家戶數의 構成比率
 2) 總人口數에 대한 農家人口의 構成比率
 3) 全産業에 대한 農林業就業의 構成比率

둘째는 “惰性態”를 기초짓고 있던 農民的 土地所有制의 강인한 힘 (力)이 크게 拮抗하면서 점차 「自作農體制」가 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다음과 같이 借地農의 증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¹⁷⁾

農地所有形態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調査機關이 각각이고 자료가 時系列上으로 一貫性이 다소 결여되어 있지만 (표 3)에서 보는 바와같이 1965년 이후 순수한 自作農의 구성비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 완전하게 自作을 하는 農家比率은 1965년 전체 농가의 69.5% 였는데 1981년에는 53.6%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서 耕作面積의 50%이상이 借地인 農家は 1965년 8.0%에 불과하였는데 1981년에는 14.1%로 늘어났다. 또 50%이하의 借地農家도 1965년 15.5%에서 1981년 27.7%로 증가하였다. 이렇게 보면 借地農을 하는 경제적 이유가 어디에 있건간에 自作農이 점차 분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賃貸借農家の 증가추세는 (표 1)을

17) 許信行：「地域農業과 複合經營」，韓國農村經濟研究院，1984，pp.228～230.

참고할 것)

(표 3) 農地所有形態別 農家戶數 構成比, 1965 ~ 81

					단위 : %
年 度	完全借地農	主借地農 ¹⁾	主自作農 ²⁾	完全自作農	計
1965 ³⁾	7.0	8.0	15.5	69.5	100.0
1970 ⁴⁾	9.7	7.8	16.0	66.5	100.0
1975 ⁵⁾	8.0	6.5	13.3	72.2	100.0
1977 ⁶⁾	6.6	9.4	20.1	63.9	100.0
1981 ⁷⁾	4.6	14.1	27.7	53.6	100.0

- 1) 耕作面積의 50% 以上이 借地인 農家.
- 2) 耕作面積의 50% 以上이 自作地인 農家.
- 3) 韓國土地經濟研究所, 「韓國의 土地制度에 관한 研究」, 1966.
- 4) 農水産部, 「1970年 農業센서스」, 1972.
- 5) 農水産部, 「간이농업센서스」, 1976.
- 6) 農水産部, 「農家調査結果」, 1978.
- 7) 農水産部, 農經研 共同調査結果, 1981.

자료 : 金榮鎭外, 「農地賃貸借에 관한 調査研究」, 研究報告 49, 韓國農村經濟研究院, 1982.12, p.10.

이와같이 한국농업은 어떤 새로운 단계를 거당하여 스스로의 metamorphose (形態變換)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轉形期”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轉形期”를 극복할 수 있는 農業經營의 創出이 당면하는 농업경영 연구의 最重要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의 “轉形” 즉, “存在形態”와 이를 위해 취해야 할 “方法”의 統一的 把握이 우리들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이상을 정리해 보면 마치 전통적이고 惰性的인 狀況 「小農 — 分散零細農耕制」위에서 經營問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단계에 와 있고 또 새로운 經營構造에의 形態轉換이 촉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轉形의 存在形態와 方法과를 통일적으로 실천하는 主體 = 農業經營者가 어떠한 理念(思考)과 實踐(行動)의 樣式을 가지고 轉形을 해야 할 것인지, 이것이 經營主體論 = 農業經營者論의 金일적 과제이다.

그러므로 우선 한국의 농업경영을 操作的으로 어떻게 파악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는 方法的 可能性은 어떠한 것인지 등이 高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첫째로 오늘의 한국농업 경영의 대부분은 進行하는 商品經濟下에서 이른바 永續的 企業體 (The firm which is the Going Concern)로서의 성격을 갖기에는 아직 먼 未成熟의 단계

에 있다. 이를 “小規模家族農業經營¹⁸⁾”이라 操作的으로 概念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經濟單位」(獨立生産者 혹은 主體性を 갖는 농업경영)¹⁹⁾ 로서는 「單位性이 缺如된 主體」—主體缺如態로서의 농업경영—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 缺如部分을 보완해 주면 일정의 「經濟單位」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는 方法的 立場을 취하고자 한다.

둘째로 缺如部分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資本蓄積과 土地集積이라는 농업경영 발전을 위해 필요한 二大條件이 缺如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은 간단치가 않다. 모두가 制度的인 改革을 필요로 하는 성질인 것 뿐이어서 個의 힘으로는 쉽게 풀어나갈 수 없다. 그러나 발전의 連鎖環을 추구해 나가야만 될 것으로서 바로 이것이 經營主體論의 과제가 되고 있다. 前者의 자본축적에 관해서는 특히 농업경영의 확대발전을 위한 자본조달과 그 투자서열을 둘러싼 문제가 기본적인 과제이다. 後者の 土地集積에 대해서는 土地가 “本源的인 生産手段”이기 때문에 농업경영의 확대발전을 결정적으로 좌우하고 있다. 그러나 「自作農的 土地所有制」下에서 권리이동에는 여러가지 제한이 붙어있고 더우기 高地價現象과 서로 겹쳐서 土地集積은 강대한 「障壁」에 서있다. 이 문제는 별도로 다루어져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한 두 가지 점만 지적해 놓기로 한다.

土地所有權의 買取擴大에는 高額의 資金을 토지에 장기적으로 고정시킨다는 의미에서 자본의 비경제적(noneconomy)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自作農主義를 바탕으로 하면서 土地利用權의 集積에 의한 「借地農」이 기대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사실상 보여주고 있는 「小作」을 合理的으로 처리해 주는, 즉 請負耕作이나 經營受委託에 의한 耕地集積의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세째로 個와 集團(마을, 地域)에 대응하는 方法的 可能性의 문제이다. 특히 土地의 集積 등은 이와 연관되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個別的 對應이 여러가지 면에서 제한되어 있는 狀況下에서는 경영발전을 指向하는 농업경영자는 집단(마을)과의 관계에서 그 경영확대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론이 찾아져야 할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달리 論議될 것임)

18) 그러나 經營主體面에서 보면 「단순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전통적인 耕種農家가 있는가 하면, 경제 변화에 대응하여 창조적, 선구적인 기업활동을 하는 이른바 Innovator—「企業的 形態」(例 畜産·園藝 등)도 존립하고 있다.

19) 經濟單位란 하나의 單位體로서 경제적으로 성장가능한 또는 존립가능한 농업경영단위(viable units in agriculture)—自立經營農家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1983년 기준으로 60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리는 농가라면 自立經營水準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수준에 이르려면 單作基準으로 벼 2.9 ha, 배추 1.6 ha, 사과 1.7 ha, 비육우 13두 등의 경영규모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崔正燮·許信行: 「自立經營農家 育成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p.23.

(3) 農業經營者의 思考와 行動樣式

① 經營者能力의 役割

앞에서 한국적 특수적인 규정성을 지니면서도 商業的 家族農業經營을 想定하여 여기의 접근을 目的 指向的으로 행동하는 人格 — 農業經營者를 重視하는 論理를 살펴보았다. 그 行動過程의 指向(經濟的過程)은 企業的인 經營體의 형성이었으며, 농업생산력 담당자의 형성과정으로서는 “小規模性”에서 하나의 독립된 再生産過程을 확보할 수 있는 「經濟單位」의 추구였다. 지금 轉形期의 農業經營者論에 부과되고 있는 것은 경영의 자기변혁이라는, 창조적인 그 러면서도 內發的인 課題들이다. 이것은 바로 外部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농업 스스로의 内部에서 釀成되지 않으면 안되는, 經營主體的인 立場의 확인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런데 經營發展·變革을 목표로 하는 行爲는 실로 다양한 형태가 취해질 수 있다. 몇가지 例로서 자본집약적으로 대응하여 시설원예를 선택할 수도 있고, 迂迴的 期間이 긴 果樹經營을, 나아가서는 農耕地造成에 의한 규모확대, 농기계 공동이용, 협업 등을 통해서 다양한 경영발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바로 經營成長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外的條件을 自己内部에 對象化=内部化하여 그것을 다시 一定的 對應策으로서 外的으로 對象化해 나가는 일련의 主體的 行動差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형태들이나 것이다.

여기에 제기되는 것이 人格側面으로서의 農業經營者論 — 經營者 能力問題이다. 이 經營者 能力이야말로 經營形態(혹은 經營規模)와 經營組織(혹은 部門結合方式)을 統轄함으로써 다음에 살필 一定的 經營力(entrepreneurship)²⁰⁾을 현실의 것으로 하는, 말하자면 統轄者의 役割을 담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經營者는 企業者, 技術者 및 勞動者로서 복합적 성격을 內藏하고 있다. 그러므로 企業者的 機能은 현실적으로 經營管理의 客體인 經營組織과 不可分하여 計劃性, 情報把握能力, 人的 信用, 決斷力 등 心理的, 人格的 側面은 先天性과 體驗思考에 의해 고도로 배양되어야 할 것이다.²¹⁾ 농업경영의 발전문제를 생각할 경우 諸條件에 대응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Schumpeter가 지적한 바와 같이 企業者이다. 즉, 經營主體가 企業者로서의 정신과 능력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가 기본적인 문제이다. 농민에게 이와같은 企業者的 精神과 能力을 갖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 하나는 外的條件의 變化(經濟的·社會的·文化

20) 經營主體가 갖는 主體性은 自立性에 의해 그 정도가 파악되며 自主性의 實體로서 企業力(entrepreneurship)을 想定하여 企業者 能力과 企業組織·形態 및 規模의 統一體로 파악한다.

21) 企業者의 무계영역을 보면, ① 생산방법에 대한 지식, ② 생산방법의 예상되는 변화, ③ 가격변화 및 현재의 가격관계에 관한 지식, ④ 농업경영을 둘러싼 경제적·사회적 및 정치적 환경변화에 대한 지식 등이다.: Bradford, L.A., G.L. Johnson: Farm Management Analysis, John Wiley & Sons, New York, 1962, p.15.

의變化)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농민에 대한 廣義의 教育이다.²²⁾ 그러나 이 두가지 모두는 현재의 농민=농업경영주체가 어떠한 構造²³⁾를 갖고 있는가를 해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農業經營構造의 近代化는 長期的인 것이나 農業經營의 改善은 個別主體의 經營行動에 따라 가능한 것이다. 물론 個別經營에 主體的 能力이 있다하더라도 규모확대라든가, 適正稼働의 실현이라든가 등은 限界的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個別主體確立을 보완·보강하는 經營者 組織(生産組織)이, 더욱 나아가서 이를 보완하는 中間組織體(地域農業組織體) 등 重層的인 Integrate를 통하여 完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人間資本形成(human capital)과 Schumpeter가 innovation의 하나로 지적한 組織革新이 金일적 과제라 강조된다.

② Entrepreneurship의 확립

(註 21)에서도 약간 지적된 바와 같이 經營主體의 基礎條件은 自主性인데 이 自主的이라고 하는 행위조건은 자본제 기업에서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되는 기본조건인 것이다. 自主性 외에 創造成이라는 성질도 강조된다.

지금 自主性이 經營主體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서로 관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經營力(=企業力)(Entrepreneurship)이라는 개념을 援用키로 한다.(自主性的 實體를 經營力으로 想定한다) 보통 Entrepreneurship은 「企業精神」 또는 「企業者活動」 등으로 번역되고 있지만 實態는 經營(企業)全體의 活動力을 뜻한다.

그런데 이 經營力은 주로 “企業者能力”과 “企業組織·形態” 및 “企業規模”(生産單位規模뿐만 아니라 市場去來 單位를 포함하여)라는 企業經營 構成要素의 結合으로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이때 組織論이라든가, 規模論 등은 농업경영학에서는 아직 모색단계에 있다)三者의 관계에 대하여, 즉 企業者能力이 組織이나 規模間에 어떠한 관계로 결합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組織 또는 規模는 企業者 能力이 實際 經營의 場에서 現實로 “힘”(力)이 되어 발현할 때의 媒介條件이라 생각된다. 즉 규모와 조직에 매개되어 비로소 能力如何가 문제로 된다는 관계이다. 이때의 힘(力)을 左右하는 것은 經營組織이며, 經營規模인 것이다.

그런데 經營主體의 힘(力) 즉 經營力(企業力)의 발생을 그 사회의 배경인 價値觀·行動樣式 등의 「文化構造」(cultural structure)에서 설명하려는 見解가 있다. 즉 Harvard·Business·School(HBS)의 A.H.Cole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經營史學²⁴⁾의 group이다.

22) 진주농업전문대학의 「생존론 영농자 양성도」나 日本의 「農業士」制度는 크게 참고할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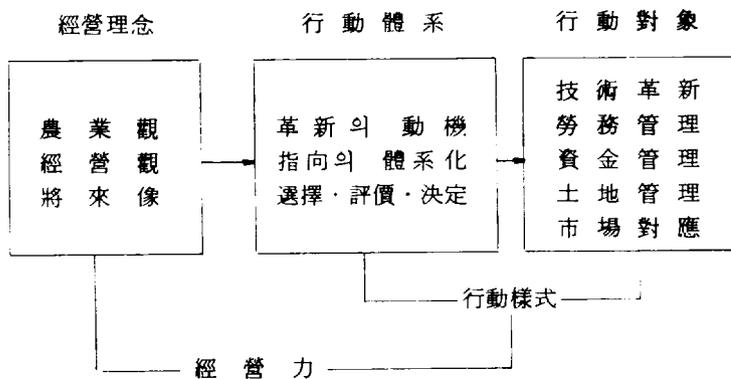
23) 스스로 “經營한다”는 主體는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客體인 農業經營構造, 이를테면 경영규모의 협조성, 家計와 經營의 未分化 등 經濟主體의 形成을 정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24) 經營史學은 企業者의 生成·發展過程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인데 그 방법은 經濟史와는 달리 經濟史·社會學·經營學의 學際的 研究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만약 특정의 「生活目的·目標」(goal and object), 특정의 「價値體系」(value system), 특정의 「行動樣式」(pattern of conduct)은 그나름의 사회에 고유한 것으로서 그 사회 인간들의 思考·行動을 일반적으로 支配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여러가지의 文化的 要因에 의해 個個 企業經營主體의 行爲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²⁵⁾ 이러한 「文化構造」에 의해 企業者活動을 설명하려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企業者的 研究」라 말하고 있다.²⁶⁾ (이상은 傾向성을 정리한 것임)

그러면 다시 Entrepreneurship 개념 쪽으로 돌아가 經營力을 농업부문과 결부시켜 보고자 한다. 經營力을 行爲理論²⁷⁾의 으로 바꾸어 보면 經營者가 품고 있는 經營理念의 形態와 그에 따라 규정되는 經營活動의 方法 즉, 行動樣式과를 통일하여 현실의 經營力으로 表出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關係를 圖示해 보면<그림 3> 다음과 같다.²⁸⁾

<그림 3> 經營理念과 行動樣式的 關聯



중래의 生業的 水準體系는 경영이념의 고려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經營發展을 지향하고 있는 농가의 農業觀, 經營觀은 「自立經營農家」에의 도달이며, 더욱 나아가서는 利潤 追求를

25) 中川敬一郎: "産業革命期の 企業者活動을 ぐる 經濟史的·經營史的·企業史的 研究", 社會經濟史學會編: 「近代企業家の 發生」, 有斐閣, 1968, p.154.

26) 한편 A.Gerschencron은 企業者活動의 源泉을 그 「文化構造」뿐만 아니라 經濟的 機會와의 關係에서도 찾아 그 경제기회의 내용에 의해 企業者活動 性格이 규정될 수 있다고 論하고 있다. : A.Gerschencron: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66.

27) T.Parsons· E.A.Shills의 「行爲의 綜合理論」에서 行爲體系는 ① motivation, ② objects of orientation, ③ cathectic mode of orientation, ④ evaluation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하나의 指向客體가 결정되어 行爲로 옮긴다고 밝히고 있다.

28) 兒玉賀編: 「農業經營管理論」, 地球社, 1980, p.59.

목표로 하는 企業的 經營의 創出이다. (포괄하여 商業的 家族農業의 指向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러한 經營理念에 따라 行動體系를 달리하는데, 이를테면 「自立經營農家」는 土地規模擴大 보다도 資本集約的인 內包的 擴大를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는 流通過程에 직접 참여하여 商業部門을 추가하는 行動體系를 취할 수 있다. (花卉類 등과 같이 市場規模가 작은 것은 생산자 스스로가 상업부문을 수직적으로 統合하여 兼營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經營理念에 규정된 行動의 선택은 경영발전의 成否가 걸려 있는 것으로서 기술개발, 노무관리, 시장대응 등의 行動對象에 작용하여 이른바 이들 經營管理²⁹⁾의 合理化, 效率化, 創造性, 나아가서 다른 集團과의 調整 등 매일의 意思決定에 당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管理方式은 venture business (모험기업)와 같아서 연구·개발, 試行·再檢討·再試行의 연속이다. G.Warr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농업에 있어서 필요되는 能力은…… 농업을 유리한 企業經營 (business enterprise)으로 조직할 수 있는 支配人 (executive)으로서의 能力³⁰⁾인 것으로서 發展指向의 농업경영자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요구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이제 한국의 農業에 있어서도 이상과 같은 企業者的 活動을 통하여 “經營이 存在하는” 主體가 충분히 확립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며 그 指向은 「새로운 家族經營으로서의 한국적인 商業農業經營」에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Entrepreneurship의 확립은 個別主體⇨組織的主體 (生産者組織) ⇨ 地域農業組織體라는 重層的인 體系에서 가능할 것이다.

(4) 個別經營의 補強·補完體系—生産(者)組織

농업생산은 가족노동력의 協業으로서 수행되어 왔다. 즉,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가족은 단순한 生活協同體로서일뿐만 아니라 농업생산을 위한 協同體이기도 하다. 이와 더불어 가족노동력이 부족할 때에는 마을을 중심으로 품앗이 혹은 臨時雇 등이 協業에 편성되어 補完되어 왔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서서 노동력의 自立化에 따라 (離農現象) 농가의 家族的 協業이 弱화되어 개별경영의 구조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無償性의 原理下에 편성되었던 共同體의 協業은 그 성립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勞動力 供給源이었던 下層農家の 離脫은 臨時雇 등 노동력 보완관계도 여의치 않고 있다.³¹⁾ 이와같이 가족노동력의 量的·質的 變

29) 經營主體의 經營行動은 바로 經營管理인 것으로서 그 내용은 명확치 않으나 자산관리, 노무관리, 경영 분석, 정보활동, 경영계획의 변경, 시장활동, 투자활동, 경영계획, 社會와의 協調活動이 되고 있다.

30) G.F.Warren: Farm Management, 1913.

31) 우리나라 경제가 차츰 勞動力不足段階에 접근함에 따라 '70年代初에는 年雇體制가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2 ha이상 (대농)의 고용노동력 의존동향을 보면 '62년 경영전체 55.8% (수도작 61.7%) 이었던 것이 '82년에는 20.6% (수도작 29.5%)로 줄어들어 가족노동력에 대한 노동강화 - 가족노동력 중심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李貞煥·李廷湧外: 「농업기계화 장기계획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3, pp.7~8.

化에 따라 勞働手段의 高度化가 한편에서는 뚜렷이 進行되고 있다.³²⁾ (표 4 참조). 노동수단의 고도화는 가족협업의 弱化, 가족노동력의 1人中心化(one man farm) 등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짐과 동시에 그것을 촉진하고 있으며 또한 현대계로서는 自己經營內利用만으로는 농기계가 지닌 성능발휘가 어려워 다른 경영과의 關係하에 비로소 그 이용이 충분할 수 밖에 없는 mechanism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³³⁾

(표 4) 農機械 保有臺數의 變動推移

單位：臺

	1965	1970	1975	1980	1984	普及率 ³⁾ (%)
耕耘機	1,111	11,884	85,772	289,779	538,273	27.3
트랙터	-	61	564	2,664	9,684	0.5
移秧機	-	-	16	11,061	30,893	1.6
바인더	-	-	-	13,652	22,635	1.1
콤바인	-	-	56	1,211	8,417	0.4
防除機 ¹⁾	7,579	45,008	137,698	331,912	473,501	24.0
脱穀機	18,909	41,038	127,105	219,896	286,647	14.5
其他 ²⁾	26,332	54,708	67,640	199,038	280,476	14.2
總保有	53,931	152,699	418,801	1,069,213	1,650,526	83.6

資料：農水産部，「農政主要指標」，1985.

註：1) 噴霧機，撤噴霧機，高性能防除機

2) 揚水機，乾燥機，播種機

3) 1984年度基準，普及率 = $\frac{\text{保有臺數}}{\text{農家戶數}} \times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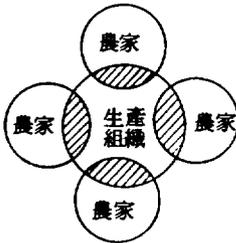
- 32) 농촌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87년까지 平野地帶는 完全기계화하고 中山間地帶는 50%수준까지 기계화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부：「1985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p.174.
- 33) 기계화 단계에서는 경영규모와 기계의 효율적 가동규모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특히 專用機의 體系的利用을 중심으로 할 때 (우리나라 기계화의 특징은 첫째, 小型化라는 점이며, 둘째로는 專用機로서의 발전이다) 自己經營內에만 이용을 국한한다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서 作業請負나 共同利用이라는 형태로 개별경영을 넘어서 利用體系가 요구된다. 그럼으로써만이 그 나름의 專用機의 충분한 가동규모를 확보할 수 있다. 즉 다른 경영과의 補完關係下에서만 기계이용도 경영적 유효성을 보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西獨의 農業機械銀行(Maschinenring)도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한 事例이다. 강경선：「西獨의 農業機械銀行에 관한 고찰」，「국제식량농업」，FAO 한국협회，1978.
2. 참조. 또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여러 형태의 利用組織을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으로 통일하여 '81년부터 농업기계 이용조직을 주축으로 삼아 육성하고 있는데 '84년 현재 3,683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1991년까지는 20,000개소로 운영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기계도입은 동시에 기계이용을 위한 조직화 추진정책이 불가피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하여 家族協業의 弱화로 인한 勞動力面에서의 補強關係, 高度化하는 勞動手段面에서도 補完關係, 이러한 관계에서 비로소 個別經營은 經營으로서의 存立을 可해 可할 수 있다는 것이 現단계의 농업경영이 놓여있는 위치라고 생각된다. 다시말해서 勞動力, 機械利用이라는 생산과정 그 자체가 다른 경영과의 補強·補完關係下에서 성립이 가능하고 있다 함이다. 이 補強·補完體系가 바로 生産(者)組織인바 個別經營이 個別經營으로써 自己完結的으로 생산과정을 마무리짓지 못할 때 대응되는 조직인 것이다. 그러므로 II장에서 지적된 商業的 家族農業經營이 성립·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강·보완할 수 있는 生産(者)組織이 必發見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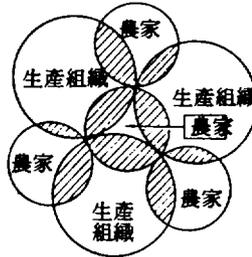
사실 家族協業으로 농업이 유지되고 있던 단계에서도 농업경영은 다른 경영에 의존함이 없이 그 自體만으로 자립하여 생산이 가능했던 것은 아니다. 水利施設이나 道路의 유지 보수 등 개별농가만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생산시설의 유지관리는 共同體的 協業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또한 관혼상제로 상징되는 생활상의 제문제도 공동체의 협조로 처리되어 왔다. 물론 生産面에서 보아도 가족협업만으로는 할 수 없는 특정의 農繁期를 품앗이, 두레 등의 공동체적 협업으로 해결해 왔던 것이다. 個別經營의 생산과정을 補強하고 補完하는 役割을 하는 조직이 生産(者)組織³⁴⁾이라 한다면 <그림 4 참조> 共同體가 마치 그러한 機能을 수행해 오으로써 小農經營에는 補強·補完組織이 언제나 隨伴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生産(者)組織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림 4> 農家와 生産(者)組織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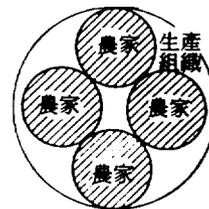
數戶의 農家が 하나의 生産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數戶의 農家が 각각 複數의 生産조직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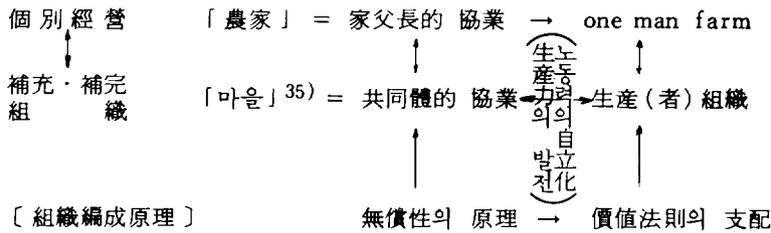


數戶의 農家が 하나의 生産조직 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 기계화 영농단 —



34) 生産(者)組織은 기계시설의 공동이용이라든가 集團栽培, 農作業의 受委託 作業 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특정 작목 또는 작업에 대하여 經營指向을 같이 하는 生産農民이 모여서 생산(자)조직을 결성한 것이다. 우리로서의 代表的인 例로서는 벼 集團栽培, 농기계공동이용 — 새마을 기계화 영농단 등이며 單位農協의 作目班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個別經營主體로서의 獨立性이 유지되는 경우의 組織에 한정하며, 새로운 경영주체를 형성하는 協業經營은 여기서 제외된다. 자세한 것은 강경선 : "농업생산조직에 대한 연구", 「제대논문집」 사회과학편 제 12 편, 1980.을 참고할 것.

그런데 共同體的 協業을 성립케한 原理와 오늘의 生産(者) 組織으로서의 協業을 성립케 하는 原理와는 質的으로 엄연히 다른 것으로서 그 다른 點에 注目하여 오늘의 生産(者) 組織(나아가서는 地域農業의 組織化)을 位置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前者가 無價性을 본질로 하고 있음에 비하여 後者는 價値法則에 따라 協業을 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점에서 質的으로 다르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 「쉐마」참조) 다시 말해서 오늘의 조직은 價値法則下에 補強·補完하는 組織 — 機能組織으로 편성할 수 밖에 없다 함이다.



앞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농업은 농업기계 시설이 널리 보급되어 이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로서 이들 기계시설의 이용은 기술적인 적정 이용규모라고 하는 점에서나 경제적인 적정 투자규모라는 점에서도 개별경영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표5 참조) 즉, 극히 일부 上層農家를 제외하면 高性能의 기계시설이 형성하는 社會的 生産力을 個別經營만으로는 内部化하기 어려운 것이다. 2000 년에도 호당 경지규모가 3ha를 초과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22마력의 트랙터를 개별경영만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문제될 것이다. 그래서 개별경영이 그러한 生産力을 内部化하기 위해서 서로 협동, 협력의 관계를 맺어 조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機能組織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農家間 協同·協力關係는 한 例로 機械利用組織을 볼 때 共同利用體系뿐만 아니라 實作業市場을 組織化하는 것도 포함됨은 물론이다. 사실 농업경영의 성장이란 것도 바로 生産力의 擴大와

35) 마을(部落)은 地緣性을 中心으로 사회생활상의 단위일 뿐만아니라 生産의 地域單位로서도 土地나 水利上的 生産조건 등 同質性을 갖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生産(者) 組織 그 自體가 마을단위로 되는 경우 또는 이와 관련된 公式 非公式 組織이 무수히 存立하고 있는데, 公式的 組織으로는 개발위원회, 새마을영농회, 새마을청소년회, 부녀회, 작목반, 영농기계단, 漁村契, 마을금고 등이고 비공식적으로는 自生的 契 모임과 마을총회 등이 있다. 그러므로 마을발전이라는 체계에서 마을의 기능에 대한 검토가 크게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生産(자) 조직에 대한 여러가지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우선 생각되는 것은 ① 農業經營機能의 分擔과 農家所得의 安定問題, ② 새로운 부문의 도입확대에 의한 복합경영의 확립, ③ Community 형성문제 등으로써 마을↔생산(자)조직의 문제로 달리 검토가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内部化를 뜻하는 것인데³⁶⁾ 이렇게 外部條件을 적극적으로 内部化하는 擔當者는 농업자 개인뿐만 아니라 농업자 조직도 될 수 있다.

(표 5) 主要農機具의 損益分岐點推移 展望

單位 : ha

機 種 別	1983	1985	1990	1995	2000	
트랙터 (22 마력)	社會的費用 基準	12.9	11.1	8.6	7.4	6.5
	私的費用 基準 (團體)	9.5	8.1	6.3	5.4	4.7
	私的費用 基準 (個別)	13.1	11.3	8.7	7.5	6.5
트랙터 (50 마력)	社會的費用 基準	30.6	25.8	19.5	16.7	14.5
	私的費用 基準 (團體)	22.7	19.0	14.3	12.2	10.6
	私的費用 基準 (個別)	31.5	26.5	19.9	16.9	14.7
移秧機 (動力2條)	社會的費用 基準	3.6	2.9	2.0	1.8	1.5
	私的費用 基準 (團體)	2.7	2.1	1.6	1.2	1.0미만
	私的費用 基準 (個別)	3.7	2.9	2.0	1.7	1.5
移秧機 (動力4條)	社會的費用 基準	4.3	3.5	2.6	2.1	1.8
	私的費用 基準 (團體)	2.9	2.5	1.8	1.5	1.3
	私的費用 基準 (個別)	4.1	3.3	2.4	1.9	1.8
콤바인	社會的費用 基準	7.8	6.8	5.4	4.6	4.1
	私的費用 基準 (團體)	4.7	4.1	3.2	2.8	2.5
	私的費用 基準 (個別)	6.9	6.1	4.8	4.1	3.6

註 : 私的費用基準에 있어서 政府支援率은 1983年 現在 支援率基準임.

資料 : 宋大熙, 柳炳端, 「産業高度化에 따른 農業構造의 改編方向」, 韓國開發研究院, 1985.

이상과 같이 간략히 살핀 生産(者)組織은 더욱 나아가서 流通組織과도 밀착되어 노동생산성 및 수익성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보완·보강체계가 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個別經營의 外部條件을 内部化하는데 하나의 容器로서, Entrepreneurship을 확립하는 手段體系로서 더욱 강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生産(자)조직을 보완하는 地域農業組織化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36) 金澤夏樹 : 「農業經營と 政策」, 地球社, 1985, p.287.

IV. 地域農業의 組織化

본장에서는 개개의 농업경영이 自己展開를 해 나갈 때 地域內的 다른 經營이나 生産(者)組織, 農業關聯機關 등과 어떠한 상호관련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상호관련이 地域農業을 單位로 하여 어떠한 system을 構築하여야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검토코자 한다.

(1) 地域農業組織의 實態認識

地域農業組織의 實態는 그것이 갖고 있는 諸屬性을 列舉하여 그 相互關聯(因果性)에 의하여 파악되고 해명할 수 있으나 거기에는 많은 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모두를 파악하는 것은 곤란하다. 여기에서는 6개의 속성 즉 空間性, 「農業生産」性, system性, 組織體性, 計劃性 및 「農村社會」性的 측면에서 검토코자 한다.

① 空間性 側面

地域은 그 위치와 넓이가 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地域의 空間性이라 한다. 그런데 地域農業의 實態는 보통 기상, 지형, 토양, 물의 네가지 指標에 의해 파악된다. 이들은 작목선택, 경영실태, 재배관리, 작업능력, 수확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 主要因의 諸法則性을 인식하고 합리적으로 활용, 응용 혹은 制御하여 농업자원화하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와같이 지역농업조직의 상태를 空間性이라는 시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작목선택, 농업생산기술, 다른 지역과의 기능적 결합관계, 地域構造 및 농업생산의 集積 등의 성격을 靜態的 및 動態的으로 인식하는 有力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② 「農業生産」性 側面

지역농업조직은 지역에 있어서의 제경제활동중 농업생산, 가공, 판매활동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농업생산은 有機的 生産過程을 필수로 하기 때문에 無機的 生産過程과는 크게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농업기술에는 在來的 慣行技術體系와 革新的 新技術, 個別技術과 集團技術이 있지만 모두가 地域諸條件, 農家の 諸條件에 따른 기술체계 즉 農法이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自給的 米麥多角經營組織을 기본으로 하는 단계에서는 농업의 地域差는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상품생산을 基調로 함에 따라 地域分化=地域性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농업경영 및 관리에 대하여서는 농업경영을 독립된 개별경영으로 하는 전통적인 방법에 對하여 經營群, 生産(者)組織, 販賣組織 및 system化 農業 등 多樣한 經營體에 의한 파악방법이 일반화되고 있다. 그래서 그전과 같이 농업을 고립적, 폐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無意味하고 있으며 「농

업생산」성은 지역농업 조직의 속성 중에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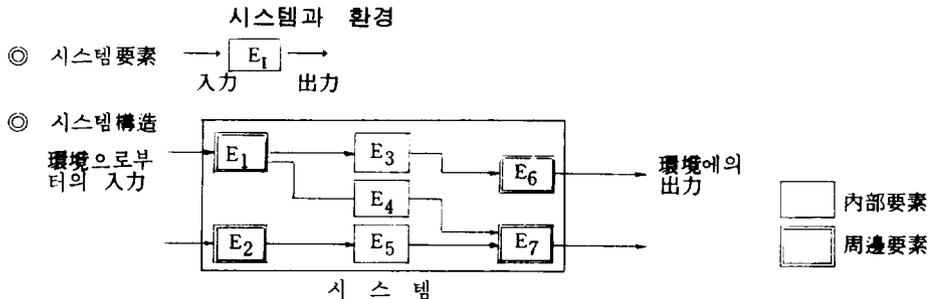
③ 「system」性 側面

전통적인 경영경제 이론은 地域의 農業을 독립된 個別經營 爲主로 고찰하기 때문에 지역의 농업을 하나의 經營體로 생각하는 지역농업 조직과 같은 개념은 갖지 못했다. 그런데 經濟의 高度成長에 따른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농업기술의 집약화, 고도화 및 판매활동의 大型化 등의 현상이 농업생산, 가공, 판매활동에 정착하고 있어 그전부터 個別經營 内部에 自己完結的으로 수행된다고 생각해 온 經營計劃, 經營組織, 販購買, 金融의 諸機能中에는 個別經營의 범위를 벗어나 外部化하는 것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농업의 多元的 構造³⁸⁾를 體系의으로 파악하여 운영 관리하기 위해서는 (個別經營의 發展性和 存續性이 保證되기 위해서) 새로운 概念導入이 필요되고 있다. 그 개념의 하나가 「system概念」인 것이다. system 개념은 여러가지로 파악되고 있지만 우선 「地域의 範圍에서 設定된 目的達成을 위하여 자원을 이용, 활동하고 있는 諸構成要素가 상호관계에 따라 결합된 全體的 統一體」라 말할 수 있다.³⁹⁾ 물론 system개념은 그 내용 및 level이 多樣的이고 많은 분야에의 적용성이 풍부하여 주로 농업이외의 분야에서 전개된 개념이므로 농업생산의 특수성, 공간성 등의 속성에 따라 그 有

37) 농업생산에는 生物生産的 行程과 機械·工學的인 行程의 두가지로 구성되어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生物生産的行程 (발전의 척도—土地生産性)에서 機械·工學的行程 (발전의 척도—勞動生産性)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 따라 이들 機械 등은 個別經營을 넘어서 地域的 調整利用이 불가피하고 있다.

38) 水稻作을 예로 들어보면 育苗過程은 共同的인 育苗로 (農協 등의 운영), 耕耘, 移秧, 수확 등은 機械化營農團에, 肥培管理와 水管理는 技術協定 (벼집단 재배단지)에 따른 個別經營이 각각 담당하여 이들이 서로 결부되어 水稻作 生産過程이 完結하도록 하는 地域農業內 여러 主體에 의해 기능이 분담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分化한 生産諸機能을 綜合化하는 즉 total system化하는 것이 필요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地域農業의 組織化인 것이다.

39) system이란, ① 獨自의 기능을 갖는 複數의 構成要素가 모여, ② 그들 구성요소는 전체로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目的指向—goal oriented), ③ 구성요소간에 서로 관계하는 複合體이다. 林周= : 「企業と市場創造」, 筑摩書房, 1960, p.172. 다음 그림과 같이 system은 外部로부터 物財, 情報 등이 input 되어 system內에서 加工處理되어 새로운 物財과 情報가 再次 output 되는 구조를 갖는 것이다. 이와같은 system的 觀點에서 地域農業을 보면 個個의 農家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를 갖는 생산 조직과 농업관련 기관까지도 구성요소로 한 하나의 system을 이룬다. 그런데 농업에서는 system 그 자체보다도 system化가 강조된다.



效性は 한정될 수 있으나 현실의 농업사정 및 한국농에 대하여 内外로부터 요청하고 있는 高水準의 能率的인 農業構造, 高水準의 능률적인 個別經營의 育成, 生産(者)組織, 地域農業組織의 형성 등에 접근하는 이론적 개념으로서 앞으로 충분히 전개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④ 「組織體」性 側面

지역농업의 제 구성요소(例컨대 個別農家の 農業 system, 兼業 system, 生活 system을 중심으로 生物 system, 自然環境 system, 農村指導 system, 農産物販賣 system, 農業生産資財 system이 있으며 또한 商·工業 system이 있어 이들 구성요소간의 상호관련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feedback 하면서 전체로서의 system행동을 규정한다)는 system 개념에 의하여 그들의 상호관계, 전체적 통일체와의 관계에 따라 파악되나 全體의 統一體를 運營管理하는 組織體가 필요하다. 이들 조직체가 이른바 지역농업조직의 中樞管理 機構로서 구성요소인 個別經營, 生産(者)組織, 기타농업관련 기관의 유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기능을 代替, 遂行하는 意思決定機關으로써 여러가지의 誘導行爲를 행하게 된다. 지역농업조직은 이 中樞管理 機構(中間組織體)를 중심으로 하는 제구성 요소 상호간의 기능분담 관계에 입각하여 형성된다. 그 形成에는 일반적인 組織構造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은 지역농업 구성요소에 있어서의 權限과 責任의 委讓이 이루어져 構成要素가 그것을 分擔한다.⁴⁰⁾ 즉 「分配」와 「統合」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여기에는 구성요소의 目標統合, 配分, 統合의 經濟的 有利性, 中間組織體에의 信賴性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 「組織體」性에는 total로서의 地域農業組織과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中樞管理機構(組織)의 두가지 面이 포함되어 있어 지역농업에 관한 새로운 동향을 반영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지역농업조직의 하나의 속성이라고 생각된다.

⑤ 「計劃」性的 側面

지역농업조직은 多元的인 構成要素의 복잡한 상호관계에 의하여 結合하는 조직이므로 그것을 全體의 統一的인 going concern으로써 운영하여 지역농업 및 구성요소의 유지, 존속, 발전을

40) 일반적으로 企業經營에 있어서 그 組織化는 權限과 責任의 委讓으로 이해되어 왔다. 자본에 의해 집중되고 있던 權限과 책임을 종업원이 늘어나는 만큼 部下에게 그 일부를 委讓하여 새로운 部·課·係를 피라밋狀으로 형성하면서 경영조직을 만들어 왔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농업에 있어서도 그 조직화와정을 보면 作業過程과 經營機能의 일부가 個別經營으로부터 地域內的 다른 主體에 委讓되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음은 위와 공통되지만 농업에서는 그 委讓過程이 企業經營과 달리 分散에서 集中에의 委讓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高橋正郎: "地域計劃と 農業經營", 吉田寬一 外編 「農業經營學」, 文永堂, 1980, p.187.

실현하려면 기본적으로는 구성요소의 目標共同化(integrate), 구성요소의 의사결정 및 기능수행을 위한 공동노력, 구성요소간의 정보전달 조직 및 관련 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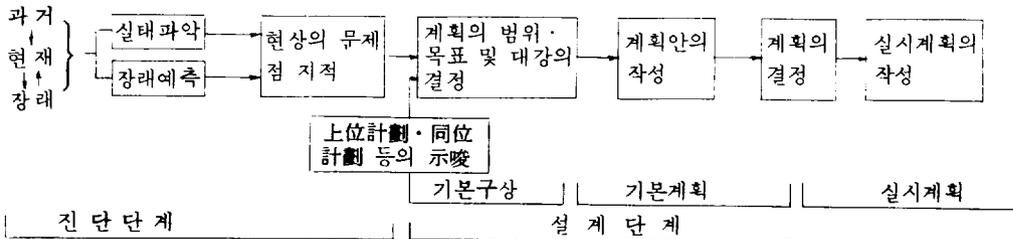
그런데 이러한 것은 환경변동에 대한 적극적인 企業者的 適應을 가능토록 하는 지역농업조직의 主體的 條件의 확립으로 밀받침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計劃機能에 따라 지역전체에 관한 계획활동이 이루어진다. 즉, 환경제조건의 객관적 예측, 지역농업의 목표형성 요인(例 소득형성 요인)의 해석, 예측에 따른 지역농업조직 목표의 설정, 基本計劃 및 實施計劃의 수립 등 일반적인 地域農業計劃手法이 적용된다.⁴¹⁾

이와같이 計劃機能의 충실과 이것을 中軸으로 하는 諸活動 즉 實施機能, 管理機能, 情報機能 등 이른바 management 機能⁴²⁾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라고 이해되며 현재의 지역농업조직을 고찰대상으로 할 때 그 중요한 속성으로서 「計劃」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⑥ 「農村社會」性 側面

지역농업 조직 개발문제로는 경제활동 중 주로 농업생산 등의 合理的인 狀態形成이 고찰대상이 된다. 그런데 合理的 農業生産 活動의 實現主體인 人間과 그 人間相互間의 社會關係는 도시지역과는 다른 특수한 사회구조를 갖는 농촌에 있어서의 「人間과 人間相互間의 社會關係」이므로 지역농업조직의 실태를 고찰하는 경우에는 그 「農村社會」狀態의 특수한 側面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농촌지역에 있어서의 사회상태로는 人間の 近代化와 社會關係의 近代化가 주된 문제영역이 되는데 다음 두가지 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傳統的 社會에 있어서의 人間과 社會關係의 近代化이다. 여기에는 血緣關係, 生産的關係, 水利關係, 地緣關係 등에서 특징지워진다. 그러나 商品生産의 農業의 展開에 따라 전통적 사회구조는 점차 붕괴되고 특히 최근에 와서 도시화가 진행됨으로써 더욱 그런 傾向이 촉진되어 근대화되고 있다.

- 41) 地域農業計劃의 構成內容을 보면, ① 토지기반정비, ② 地力의 維持·增強, ③ 부문별 농업진흥(産地育成), ④ 유통·가공·저장, ⑤ 정보의 수집·처리·전달, ⑥ 농업후계자 육성, ⑦ 농가의 조직화, ⑧ 자연적 환경의 保全, ⑨ 사회적 환경의 개선, ⑩ 物的環境의 정비 등으로써 土地利用計劃, 施設價値計劃, 農家組織計劃이 추가된다. 또한 「計劃」過程을 보면 다음과 같다.



- 42) 지역농업에 관계되는 management 기능은 地域目標의 設定으로부터 計劃, 組織, 指導, 調整이라는 일반경영관리론에 말하는 management cycle을 완성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殘存하여 도시와는 다른 농촌사회를 형성하고 있어 作目選擇, 技術普及, 計劃的 行動의 單位形成 및 生産(者) 組織形成에 規制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는 지역농업 조직에 있어서의 농업생산 등의 활동에 적합한 農業者 形成과 社會關係形成 혹은 方向에의 改善, 誘導를 꾀하는 데에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또 하나의 側面은 최근 농업분야에서 注目되고 있는 人間-人間 system 形成에 있어서의 人間과 그 社會관계의 측면이다. 여기에는 합리적인 농업생산 등의 활동에서 近代化된 人間과 그 社會關係의 model 形成에 관계된다. 이 model 에 입각하여 현실에 있어서의 農民觀, 價値體系, 目標統合, 協同model, 人間關係 統合의 제문제를 追求하는 것은 人間과 人間相互間의 關係 특징을 밝혀주어 地域農業組織에 있어서의 농업생산활동 형성에 相應한 社會관계 형성에 기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農村社會」성을 두가지 側面에서 高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2) 地域農業經營의 確立

우리는 Ⅲ장에서 農業經營의 二重構造的인 側面을 高찰한 바 있는데 다시 표현방식을 달리하여 高찰하면서 地域農業主體의 形成問題를 定立해 보고자 한다.

企業經營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一般經營學의 論議⁴³⁾를 종합 정리해 보면 實體로서 存在하는 企業經營이라는 統一體를 經營이라는 側面과 企業이라는 側面을 對比하여 二重性으로 認識하고 있다. 즉 經營을 經濟性을 목표로 하는 生産單位, 個別資本의 生産적 측면, 혹은 調達·製造·販賣 등이라는 職能이 total로 完結하는 組織體單位로 파악하는데 對하여 企業을 經營의 所有單位, 資本이 價値增殖을 추구하는 經濟單位, 財務單位, 個別經濟의 經濟計算單位로 파악하고 있다. 요는 현실의 企業經營이라는 것을 經營이라는 側面과 企業이라는 側面을 主體的으로 統一하는 形成作用(management)으로 理解하고 있다.

이와같은 經營의 二重性의 理解를 농업경영학에 도입한 것은 金澤夏樹 教授로서 농업경영의 경우 企業이라는 用語를 사용할 수 없어 결국 이 二重性을 經營의 社會的 側面과 私的 側面으로 파악하고 있다.⁴⁴⁾ 經營의 社會的 側面이란 경영이 社會經濟 속에서 존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生産力을 향상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技術的 側面을, 경영의 私的 側

43) 經營을 經濟性을 目標로 하는 生産單位, 企業을 그 經營의 所有單位로: 增地庸治郎: 「經營經濟學」, 改造社, 1929, pp.69~86. 또한 經營을 調達, 製造, 販賣 등 일련의 활동을 행하는 組織體, 企業을 獨立된 個別經濟의 再生産單位, 經濟計算單位로 정착하고 있다.: 高宮晉: 「現代の經營」, 다이アモンド社, 1970, pp.17~20.

44) 金澤夏樹: 「農業經營學の體系」, 地球社, 1980, p.39.

面이란 收益이 實際로 歸屬하는 所有單位, 私的配分の 單位를 가리키고 있다. (일반경영학에서의 企業的 側面에 해당된다) 이 兩側面을 統一體로서 體現하는 것이 구체적인 농업경영이며 그 經營主體가 그 人格的 表象으로서의 農業經營者인 것이다.

그런데 이 經營의 二側面的 理解와 그 主體的인 統合의 process를 가지고 오늘의 地域農業과 거기에서의 個個農業經營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된다. 여기에서도 「經營」을 經濟收支의 單位 — 經濟單位로서의 經營側面과 經營機能이 完結하는 技術 — 機能單位로서의 側面을 統合하여 파악하는 것이 알맞을 것이다.⁴⁵⁾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오늘의 농업경영은 이 兩側面이 經營機能의 分化, 分擔에 따라 個別經營主體로서는 統一하기가 어려워 (自己完結性的의 缺如) 서로 괴리하고 있는 狀況을 보여주고 있다. 즉, 經營의 二側面中 經濟單位로서의 側面은 그전과 같이 個個의 家族農業經營을 單位로 하고 있지만 機能單位로서의 側面은 최근 농업생산력의 전개 등에 따라 크게 변모하고 있다. 이를테면 販賣機能은 農協이나 共販組織에, 生産行程中 育苗機能은 농협 또는 생산(자)조직에, 경운, 수확, 탈곡 등은 農機械營農團이나 作業受託組織에…… 등을 지역농업내의 다른 主體에 委讓하면서 機能單位로서의 經營側面은 개별농가 범위를 벗어나 地域을 單位로 하여 完結하게끔 되고 있다. 그런데 이 二重性的의 統合은 지금까지 自己完結的인 家族農業經營에서는 經濟單位로서의 범위와 機能單位로서의 범위를 구체적인 농업경영자에 의해 主體的으로 統一시켜 왔다. 오는 本來 統合되어야만 할 經營의 二側面中 機能單位로서의 側面이 生産力의 展開에 따라 개개 가족경영을 포함하면서 地域農業으로 확대함으로써 이것을 單位로 體系化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된 것이다. 그러므로 機能單位로서의 側面과 個個家族經營이 지니고 있는 經濟單位로서의 側面과의 괴리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經營」의 totality를 回復하는 것은 아무래도 兩者를 누군가가 主體的으로 調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바로 여기에서 地域的인 農業主體形成이 제기되는 論理를 發見할 수 있다. 이것은 地域農業經營의 確立으로서 地域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機能單位로서의 側面을 여하히 의식적으로 體系化하여 하나의 system으로 構築해 나갈 것인가, 더불어서 지역으로 확대된 기능단위로서의 경영측면과 個個 家族經營이 담당하고 있는 經濟單位로서의 側面을 地域 consensus나 權利調整 등을 통하여 여하히 主體的으로 통일시켜 나갈 것인가라는 地域農業管理 — 地域農業 management⁴⁶⁾의 확립이 하나의 과제가 되고 있음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다시말해서 農家, 生産, 組織, 農協, 농촌지도소, 邑面行政體 등 대다수의 主體에 의해 分散的으로 담당되어지고 있는 機能單位를 橫的으로 連携하여 set로서 體系화한다는 것이 새롭게 요청되는 기능인데 이것이 바로 management 기능

45) 高橋正郎: "地域計劃と農業經營", 前掲書, pp.189~191.

46) 上同: 「自治體農政と地域 マネジメント」, 明文書房, 1979, pp.61~66.

으로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개가 地域農業 management 확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상의 內容들을 일반적인 OR model로 표시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다.

$E = f(X_i, Y_i)$ 단 $X_i =$ system에 있어서의 變數로서 經營者의 意志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

$Y_i =$ 制約條件으로서 經營者의 意志로 움직일 수 없는 부분

$E =$ X_i 를 움직인 결과 얻을 수 있는 效果(利益 등)

농업의 경우 經營者는 個別 生産農民이다. 個別生産者는 개개의 經營條件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나아가서 個別經營單位로 對應하는 것 보다 地域農業 system에 機能을 委讓하는 쪽이 훨씬 높게 나타나는 기능이 있다. 例컨대 위에서 지적된 販賣機能을 農協이나 共販組織…… 등등 經營機能의 分化·分擔을 통하여 (地域內的 다른 主體에의 委讓) 地域農業을 單位로 경영기능을 완결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III장에서 個別經營의 존속·발전을 보완·보장하는 體系로서의 生産(者)組織을, 이를 통하여 Entrepreneurship의 확립을 제기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地域農業의 組織化(system化)를 통하여 個別經營은 물론 生産(者)組織을 補完함으로써 地域 level에서의 企業者의 努力을 傾注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앞에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工業分野 등에서는 企業努力이 줄기차게 있어왔지만 농업에서는 정체되어 있다. 그러므로 농업에 있어서도 일련의 innovation을 동반하는 企業者 活動이 전개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企業的 努力은 개개 농업경영에 있어서의 經營內 改善을 위한 企業努力이 있는가 하면 그 개별경영을 둘러싼 地域環境改善을 위한 企業努力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므로 面的인 土地를 대상으로 하는 농업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經營內 改善의 企業努力 뿐만 아니라 地域 level에서의 企業努力이 없으면 그 발전은 한정적이라 볼 수 밖에 없다.

(3) 組織化의 接近論理

① 地域複合論으로서의 接近

농업의 複合化⁴⁷⁾中 複合經營은 특히 그 部門結合을 個別經營의 범위내에서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나, 한편 地域複合은 같은 農業의 複合化이면서도 個別內的 部門結合과는 달리 개개의

47) 複合經營이란 單一作經營에 대립하는 개념으로서 몇가지의 作物이나 畜産部門을 서로 組合하여 토지 이용, 기계이용, 노동력이용, 中間生産物의 利用, 輪作에 의한 地力維持 등 複합化의 merit를 실현하려는 경영방식이다.

경우 單一部門에 專門化하여 그 利點을 追求해 나가면서 동시에 지역내에서 다른 部門에 專門化하고 있는 經營과 결부시킴으로써 部門結合의 利點을 개별을 넘어서 지역단위로 실현하려는 것이다. 즉 「一定의 地域을 대상으로 한 經營複合化의 組織化方式」⁴⁸⁾으로써 파악하여 經營複合化를 말하자면 縱과 橫의 관계로 지역농업조직화를 추구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所得向上을 기하려면 어느정도 專作化하면서 生産性を 높여 나갈 수 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專作의 弊害를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畜産經營과 다른 耕種農家間에 中間生産物을 지역내에서 순환시키기도 하고 連作障害로 고민하는 채소농가의 토지를 지역내의 다른 作物을 재배하는 농가의 토지와 利用交換하여 지역단위로 輪作體系를 세울 수 있다. 또한 기계나 노동력을 作業時期가 다른 異種農家間에 利用交換할 수 있어 地域單位的 經營間 結合을 실현함으로써 個別로서는 單一化의 利點, 지역단위로 복합화의 利點을 함께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⁴⁹⁾

그런데 개별에 의한 복합경영은 부문결합을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意志主體가 存在하고 있으나 地域複合의 경우는 그것을 지역단위로 주체적으로 결합시킬 수 있는 意志主體가 없다. 이전은 전통적 결합에 기초하여 일부 성립되어 왔지만 농업 내외의 구조변동에 따라 생산자에 의해 地域(마을)을 중심으로 하여 自主的인 組織化를 통하여 意志主體를 형성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즉, 目的 機能集團에 의하여 土地·水, 機械, 勞動力, 中間生産物 등의 地域農業資源의 관리가 불가피한데 이것은 地域農業의 조직화에서 가능할 것이다.

② Agri-system으로서의 接近

앞에서 지역농업 조직이 지니고 있는 屬性中 system性에서도 논의된바 있지만, 농업생산에 있어서의 두가지 行程 — 生物生産的 行程과 機械·工學的인 行程 중 後者部分이 증대됨에 따라 농업생산조직은 점점 分化하여 社會的 分業化가 진행된다. 그 결과 自己完結性이 무너져 多數의 主體에 의해 分散的으로 담당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分化된 生産者機能을 綜合化 — totality를 형성할 필요가 제기된다. 즉 「經營」의 一側面인 機能單位로서의 totality 확립을 도모하고자 할 때 이를 地域農業의 system論的 把握이라 할 수 있다. 地域農業에 統

48) 永田惠十郎; “農業複合論への接近”, 澤邊惠外雄外編: 「地域複合農業の構造と展開」, 農村統計協會, 1979, p.42. 여기서는 地域農業組織化를 一定의 生産力 段階에 照應하는 「土地·水·人의 地域的 統合」으로 보고 있다.

49) 최근 市場의 內部組織化 問題는 內部組織의 經濟學(Economic Internal Organization)에서 깊이 다루어지고 있다. 즉 이 분야는 1974年 펜실바니아大學의 Conference, Economic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이 계기되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개념을 간단히 보면 企業이라는 組織의 內部 및 內부와 外部(市場)와의 境界에 注目하여 資源배분 내지 의사결정의 process를 정보와 거래라는 key개념을 사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해명하려는 것이다. : 今井賢一外; 「內部組織の經濟學」, 東洋經濟新報社, 1983. 지역농업의 조직화 즉 中間組織體의 形成論理(특히 地域複合化에 의한)는 內部組織의 經濟學과 同一軌道上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들은 자원배분의 수단으로서 옛부터 「마을單位」를 중요한 요소로 성립시켜 온바 있다. 사실 개개경영은 순수한 의미에서 自己完結體가 아니라 마을내의 많은 농가와 협조 — 상호교류라는 마을 농업 system으로 경영을 지속시켜 왔음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一性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의 두뇌로서 農業管制center (行政活動, 經濟活動, 指導活動을 한데 묶어 놓은 中樞的 協議機關으로써 강력한 조정기능을 갖는다)가 설립되는 것이 전제된다. 이러한 농업의 system化는 日本에서 1969년 經濟審議會農業問題研究委員會의 「日本農業進歩에의 길」이라는 연구보고서에 제기된 것이다.⁵⁰⁾ 이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진척되었는데 그 주 내용은 理論的研究, 現狀分析의 研究 및 Agri-system 개발 계획 연구 등이며 관점은 생산수단의 대형화, 자동화에 따라 새로운 생산기능의 分業과 協業體制로 再組織할 수 밖에 없는 一 地域的 system化의 필연적 경향에 대한 對應問題이다.

③ 經營管理論으로서의 接近

지역농업의 totality 회복의 문제를 現代經營學에 있어서의 管理論·組織論에 그 論理的 根據를 두면서 構築된 조직 모델 — 中間組織體 —의 社會的 實體를 自治體에서 찾아 「自治體農政」의 전개과정에서 地域農業組織化의 論理析出이 시도되고 있다.⁵¹⁾

그러면 여기서는 II장에서 논의된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中間組織”에 대해서 다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 기업경영이라면 당연히 内部經濟로서 자기의 경영활동에 포함되었어야 할 생산계획, 작업계획, 출하계획, 정보수집과 분석 등이 개개경영으로서의 外部經濟化하고 있다. 이렇게 外部經濟化한 (원래는 내부경제화 되었어야만 하는 것이지만 個別로서는 外部經濟이나 지역단위로 보면 내부경제화 할 수 있는 것임) 内部經濟를 再次 内部經濟로 組織化한 것을 「中間組織體」라 하고 있다. 그래서 개개의 전통적인 가족농업경영을 外延化해서 개별경영을 中間組織體로 조직화하는 以外에는 농업자가 산업사회에서 존속해 나갈 길이 없다고 일찌기 지적한 바 있다.⁵²⁾

그러므로 外部經濟化한 諸機能을 地域農業을 組織化(中間組織體形成)하여 그것을 地域單位로 system的으로 운영함으로써 재차 내부경제화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것은 國民經濟 ⇄ 農業 ⇄ 生産者라는 體系에서 中間項(農業部門)이 弱體化되어 있는데 이것을 강화하여 國民經濟와의 調整役을 農業内部 體系에서 充實化하려는 論理와도 같다.⁵³⁾ 농업을 농업답게 하

50) 經濟審議會 農業問題研究委員會: 「農業의 裝置化と システム化」, 農林統計協會, 1969. 兒島俊弘: 「アグリシステムハンドブック」(日本の農業 85), 農政調査委員會, 1973. 農政調査委員會編: 「アグリシステム」(日本の農業 66·67), 農政調査委員會, 1970. 여기에서의 system化論은 工業部門에서 발전하고 있는 「裝置化」에 중점을 둔 hard system論으로서 工業의 論理를 無原則으로 농업에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 농업관계 센터하에서 개개농업자의 의사결정권이 무체된다는 비판 등이 있었다.

51) 高橋正郎: 前掲書. 또한 高橋正郎 教授는 農業에 있어서의 中間組織體의 生成과 展開를 체계화하였으며 특히 組織論的으로 研究된 것은 「日本農業の組織論的 研究」, 東大出版會, 1973. 가 있다.

52) 馬場啓之助: 「農業近代化の道」, 東洋經濟新報社, 1970, P.V.

53) 中間項에 地域이라는 것을 삽입하여 個別→地域→全體의 體系로 보아 좋을 것이다.

기 위해서는 이 中間項을 확실하게 확립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中間項이 본래의 기능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농업자 자신의 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中間組織體라 표현한 것은 이 기능을 농업자의 조직체(例 農協)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뜻에서이다. 個別農家の 집합인 지역농업에 대하여 지역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끔 하려는 조직체인 것이다.

中間項 — 農業部門의 강화로 外部經濟의 形成을 기하고 이를 재차 개별경영에 内部化하여 개별경영의 성장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中間組織體는 다른 中間組織體와 市場을 통하여 경쟁을 하면서 산업사회에 존속하기 위해서는 企業者活動을 적극적으로 전개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企業者活動을 지역농업의 조직화를 통하여 실현해 나가려면 動態的인 조직으로서 운영되어야만 할 것이다.

이상의 經營管理論의 接近을 「中間組織體論」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앞서서도 지적된바 있지만 「중간조직체」란 농가, 농협, 토지개량조합, 농촌지도소 등 지역농업의 담당자(기관)를 重層的으로 조직화한 것으로서 생산, 판매, 금융, 영농지도, 토지기반 정비 등 개별로 이루어져 왔던 이들 一連의 經營行動을 地域을 단위로 内部經濟化하여 지역농업이 하나의 경영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total system인 것이다. 이 「中間組織體」는 밑으로부터 위어로의 權限을 委讓하는 형태로 구조화하여 조직의 구성주체는 그 나름의 경영행동을 分擔하지만 다른 구성주체로부터 권한委讓을 받은 組織主體는 지역농업의 계획, 조직화 지도, 統制, 制御 등의 management 기능을 하게 된다. 이 분야의 研究目的은 주로 경영조직론과 관리론을 기초로 하여 지역농업조직을 「中間組織體」로 규정하여 조직과 환경, 조직구조의 확립, 조직과 구성원의 긴장관계 등에서 중간조직체를 분석하는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上記한 세가지 論理 즉 地域農業複合化로서의 組織化, Agri-system으로서의 組織化, 中間組織體로서의 組織化論리는 論理的 밑받침을 해준과 동시에 地域農業組織 그 자체를 표현해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러면 다음은 地域農業組織化의 概念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④ 組織化의 概念整理

최근 地域農業을 하나의 system으로서 파악하려는 견해가 크게 제기되고 있는데 「地域農業의 組織化」를 「Agri-system의 形成, 즉 「地域農業의 system化」로 代替表現해도 큰 잘못은 없을 것이다.⁵⁴⁾ 그러면 Agri-system의 형성이란 무엇인가. 地域農業(關聯)部門

54) 農村開發企劃委員會: 「Agri-system의 理論的 研究」, 農村開發企劃委員會, 1972, p.10. 그런데 system化를 組織化로 보는데에는 무제점이 없지 않다. 즉 C.I.Barnard는 「組織은 단순하던, 복잡하던 할상 조정된 인간행동의 객관적인 system이다」라고 하고 있어 같은 次元에서 理解하고 있으나 (C.I.Barnard: The Function of the Executive, p.94.) 일반경영학 분야에서의 組織論은 Organization을 조직으로 譯하고 있다. 이것은 system에 비하여 보다 統一性이 강조된 것이고 더우기 人間關係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system 보다 좁은 의미의 개념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system은 動的인 개념으로서 지역농업을 대상으로 할 때 생산자를 포함하여 농업관련기관의 人的結合組織과 土地,

의 經濟活動을 公同의 目的을 갖는 地域集團으로 組織化하려는 것으로서 「經濟活動의 組織化」를 ① 농업부문을 중심으로, ② 地域이라는 空間을 場으로 하여 성립케 하려는 것이다. 또한 system의 環境으로서는 ① 市場 mechanism의 作用, 즉 구체적으로는 地域間(Agri-system과 그 外部地域)의 경쟁 — 市場 mechanism을 媒介로 하여 活動이 이루어지며, ② Agri-system 内部에서도 원칙적으로 市場 mechanism에 의한 競爭을 전제로 하면서 共同 目標指向(内部 調整)을 하게 된다. 물론 system을 구성하는 内部의 각종 經濟主體는 서로 다른 多樣的 選好關係를 갖는 것으로 想定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개별농가 또는 個別 小集團別로 價値觀이나 選好樣式도 다르다. 그러므로 최근 一般經營學 특히 組織論에서 주목되고 있는 「連合體」(coalition) model과 같아서 異質集團의 連合이라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地域農業의 組織化는 ① 既存의 生産(者) 組織보다도 廣域의 空間을 갖는 地域農業⁵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② 지역농업 내에 존재하고 있는 生産(자)조직간의 상호의존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 ③ system은 目的指向의인 性格을 갖고 있어 一定의 地域農業 目標에 대하여 調整, 誘導的인 上位(郡 또는 道單位 등) system을 포함 또는 連携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社會 system인 地域農業 system은 system을 구성하고 있는 農業者의 經營意向을 파악하여 一定의 目標에 향하여 행동하도록 조정, 유도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한다. 개별생산

建物, 機械 등의 物的 要素와를 統轄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system理論에서는 system을 對象을 要素로 하는 全體性, 關聯性, 目的性, 環境性, 水準性, 機能性, 入力, 出力, 設備, 方法 등의 特性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地域農業의 組織化를 Agri-system의 형성 또는 地域農業의 system化로 代替表現하는 이유는 보통 말해지는 生産(者) 組織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조직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뜻에서이다. 그런데 生産(자)조직은 特정의 作目 혹은 作業에 대하여 經營指向을 같이하는 생산농민이 모여 조직을 만드는 것으로서(例 作目班) 지역농업 system 전체 중의 部分 system인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지역을 統合·運營하는 기구는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 강경선 : "농업생산조직에 대한 연구", 제주대학교 논문집, 사회과학편, 제 12집, 1980. 참조.

- 55) 地域概念把握에는 nominal한 개념과 實體의인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는 後者에 따라 一定의 範域 — 「어느 정도 autonomous한 地域的, 社會的 統合體로서의 「地域」=「實體的 地域」을 전제로 하여 지역농업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래서 실제적 지역=지역사회에는 마을(부락)과 같은 小地域으로부터 市·郡·邑·面·里·洞 등 각종 level의 것이 존재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지역농업의 Key Unit(강경선 :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에 대한 試論的 研究", 「國民大學論文集」(1972), p 375. 참조)를 단위농협의 범위를 지역농업의 대상영역으로 삼고자 한다. 농업도 廣域合併한 것(面 單位 以上) 里洞單位의 소규모인 것이 있으나 지역농업의 중심적 특히 生産(자)조직 등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일단 이 범위를 지역농업상의 지역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地域農業이라 단순히 농업이 영위되고 있는 地理的 空間으로서의 物的인 實體概念으로서만이 아니라 농업을 둘러싼 個別과 全體 즉 개개의 농가·농업경영과 전국적인 농업·농정·농업단체 등과의 中間項으로 위치하여 고유한 資格을 갖는 제3의 reality로서 主體가 있고 地域意思가 있어 이에 따른 고유한 행동이 있다. 그 행동이란 구성원인 개개농가나 농업경영의 個를 넘어서 諸機能을 지역단위로 집약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지역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다.

농민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던 경영의 장래 목표에 대하여 앙케이트 조사 또는 면접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꾀하려는 것이 地域農業 system이다. 한편 이 system은 새로운 system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既存의 農業關聯組織(例, 邑面行政體, 單位農協, 農村指導機關, 生産(者)組織, 生産者代表 등)을 재편하여 문제해결을 기하려는 것으로써 廣域的인 地域單位는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 그러므로 行政的인 邑面單位 혹은 單位農協의 範圍가 地域農業 system 單位로 적당하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4) 組織化의 主體, 機能 및 構成

① 主體

지역농업조직화를 구체적으로 운영·관리할 조직체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기로 한다.

個個農家가 지금까지 담당해온 生産行程이나 經營機能中 몇몇은 機械化 등의 진전에 따라 분리되어 다른 主體에 의하여 分擔되고 있다는 점은 거듭 논의된 바 있다. 현실적인 면에서 그 기능분담관계를 보면 販購買機能 — 農協, 농기계이용 — 기계화영농단, 技術普及 — 農村指導所, 地域農業開發計劃 — 行政體,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生産(者)組織 등의 관계이다. 이와같이 지역농업은 개개의 농가를 軸으로 하면서도 많은 主體에 의해 分擔되어 있다. 이들 主體는 重層하면서 地域農業은 하나의 單位가 되어 다른 地域農業과 경쟁하며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諸主體는 서로 밀접한 상호의존관계를 가지면서도 獨自의 機能을 갖는 독립된 主體로서 自立하고 있다. 지금까지 經營機能이 개개의 농업경영에 집중하고 있던 때에는 그 기능을 한사람의 경영자 의사에 따라 統轄되고 manage 할 수가 있었다. 여기에서는 경영기능이 그 경영자에 의해 하나의 totality를 가짐으로써 유지될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의 地域農業은 그 경영기능이 여러 主體에 分業的으로 담당되어지고 있어 그들을 統轄하는 意思主體가 존재하지 않으면 경영기능의 totality가 확보할 수 없다고 하는 狀況에 있다.

그렇다고 해서 地域農業을 하나의 기업경영과 같이 특정 주체에 의해 諸機能이 統轄되어질 수는 없다. 그러므로 地域農業을 單位로 하여 management 할 수 있는 主體的인 management group을 형성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意思決定 主體가 重層的인 多元的 組織體) 地域農業의 totality를 형성 운영할 수 있는 主導的 主體는 우선 行政體가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單位農協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生産者들의 自律的인 組織體를 形成하여 主體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는 行政體와 農協의 機能的 差異를 살피면서 農協主導型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行政體主導型 地域農業振興機能을 보면, ① 農協을 포함하여 지역농업에 관계되는 관계계기관을 조직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② 농업과 비농업과의 利害調整機能을 갖고 있다는 점, ③ 法令에 따라 부여된 行政權을 행사하여 농업자 및 일반주민의 행동을 규제할 수 있다는 점, ④ 國家·道の 公共資本을 활용할 수 있는 입장에 있고 또한 經濟採算에 꼭 억매임이 없이 사업을 계획·실시할 수 있다는 점, ⑤ 농업정보 集積이 쉽고 人材面에도 상대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다는 점 등 地域農業 system의 담당자로서 뛰어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⁵⁶⁾

다음은 農協의 地域農業振興機能인데 ① 매일의 業務를 통하여 농업자가 직면하고 있는 營農問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점, ② 綜合農協은 原則적으로 地域의 全農家를 조직하고 있어 개별농가의 경영문제를 지역농업의 차원에서 總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는 점, ③ 지역농업자의 자주조직으로서 국가나 地方自治體의 公共의 立場을 취하지 않아 농업자의 營農問題에 대응하는 現場으로부터의 자유로운 發想을 가질 수 있다는 점, ④ 그 활동은 조합원의 同意는 필요하나 市邑面과 같이 法的規制나 財政面的 制約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 등이다. 또한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農協이 下部組織으로서 生産(者)組織 — 作目班을 1984년 현재 17,416개소를 조직 육성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상 본 바와 같이 行政體(自治體) 主導型이나 農協主導型은 그 나름대로의 機能을 獨自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장단점으로 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서는 農協主導型을 中心體로 삼아 관계자(기관)(行政體, 農村指導所, 生産者代表, 生産者組織) 조직화(例 地域農振興協議會)의 事務局 機能을 農協이 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따라 농협은 생산에 있어서의 組織化 指導對策, 市場의 획득, 확보, 확대에 대한 지도와 대책, 지역으로서의 농업확립을 위한 地域農業의 計劃化⁵⁷⁾와 推進者로서의 中間組織體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의 대책과 지도가 營農指導活動으로서 강화해 나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관계계기관과의 意思疏通 및 실무담당자 회합의 강화, 농협의 事務局機能 形成과 強化, 각종 회의, 협의회 등 관계의 조정 등도 地域農業의 system化라는 目標에서 리더쉽을 발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상의 農協主導型의 地域農業組織化 主體는 앞서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최근 일반경영학 특히 組織論에서 注目되고 있는 連合體(coalition) model과 같은 것이며 system 理論에서 보면 政府 등으로 대표되는 「定型的 組織體」와 市場 등으로 대표되는 「無定型的 組織體」와의 中間에 位置시킬 수 있는 「半定型 組織體」⁵⁸⁾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리고 主要機能

56) 그 외에도 ① 지역전체의 장기적인 비존을 가지고 기반정비 등을 처리할 수 있고, ② 토지에 대한 調整機能을 발휘할 수 있고, ③ 마을기능을 활성화하는 지도력을 갖고 있는 등 行政體(自治體)型的 특징을 볼 수 있다.

57) 機能分擔關係에서 地域農業의 計劃은 地域開發計劃의 일환으로 行政體가 담당하는 것이 보다 有效할 수 있다.

58) 公文俊平: 「社會システム論」, 日本經濟新聞社, 1978, p.38.

은 個別經營의 企業者活動을 補完·補強해 주며 각 分擔主體의 cordination機能 즉 調整機能인
될 것이다. 이것을 縱橫의 連結 pin機能(組織의 連結과 統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
며 59) 특히 농업관련기관과 농가집단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다음에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
다.

② 機能

地域農業의 組織化는 「地域内部」의 組織化로서 地域間的 競爭을 전제로 하여 地域을 單位로한
「地域經營」이라는 관점에서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地域內的 個別經營을 비롯한 여러
가지 生産組織 등을 subsystem으로 하여 total system으로서의 地域農業의 system化—
地域農業 管理組織(調整·協議·指導)의 機能을 Parsons의 AGIL理論⁶⁰⁾에 관련하여 보
면 다음과 같다.

A機能: total system인 地域農業의 機能을 달성하기 위해 情報의 收集, 問題解決方法을
검토하는 정보 center 기능, 社會system으로서의 地域農業이 갖는 모순을 일찍 파악하여 그
해결의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 권고하는 기능.

G機能: 多元的인 system構成主體의 目標을 통합하여 公同의 目標을 설정하여 각 사업계획
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

I機能: system내에 있는 농업생산(자)조직, 판매조직 등의 組織指導機能

L機能: 構成員 相互間的 利害對立을 해소하여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행하는 기능

이상 보는 바와 같이 농업의 지역적 운영, 관리는 個別經營을 補完하기도 하고 結合화하기
도 하나 그 中心은 경영주체인 個別經營의 創意와 活力을 伸張시키는 즉, 補完·補強하는 성
격을 갖는다. 또한 地域農業 system化가 새로운 기능에 대하여 조직을 組立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조직을 전제로 하여(例컨대 行政體, 農協, 마을代表, 組織體代表 등으로 구성되는 協
議體) 새로운 기능을 分擔하는데에 그 특색이 있다.

③ 組織構成

원래 system의 思考方式은 機能, process를 중시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는데 필
요한 조직구성을 전제로 한다. 각 기능에 대응하여 複數의 system이 존재하여 거기에서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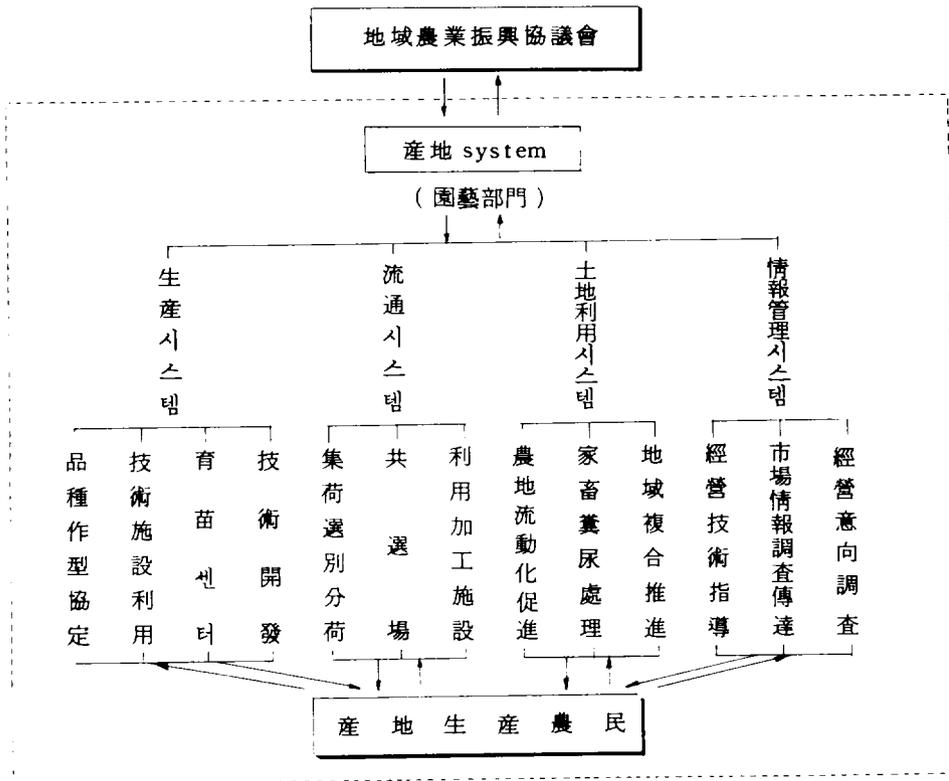
59) 「連結 pin 機能」의 개념은 L.Likert: 三隅譯: 「經營の行動科學—新しいマネジントの探求」
ダイヤモンド社, 1964.에 의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組織의 連結과 統合을 위해서는 重複集團形成이 필
요하며 이중 어떤 한 집단의 구성원이 leadership과 membership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
는 즉 連結 pin 機能에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0) 社會는 그 存續을 위한 機能條件으로서 A-G-L-I의 네가지 局面을 가지며 그들은 서로 機能的 關
聯을 나타낸다고 T.Parsons 등은 지적한 바 있다. 그 내용은 (A) 환경에의 적응, (G) 目標의 달
성, (I) 統合, (L) 가치 pattern의 유지 및 긴장처리이다.

장 效率的인 조직을 선택한다. 그런데 앞서도 지적된바 있지만 既存의 地域組織을 전제로 하여 system기능을 분담시키는 發想方法을 택한다. 기존의 농업조직으로서는 邑面의 行政體, 農協, 각종 농업관계 조직체 및 그 代表 등이 있는데 이들을 각각 기능을 분담케 하는 재편성을 취하는 것이므로 새로운 조직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地域農業振興協議會를 上位 system으로 想定하여 앞의 각 기관 및 생산자 대표 등으로 구성케 한다. 이에 따라 지역 농업진흥계획, 토지(물)이용계획, 토지개량투자, 농업 및 비농업부문 등 高次元의 綜合調整機能을 수행하게 된다. 이것은 個別經營機能 또는 生産(者)組織機能의 一部를 補完 代替하는 것으로서 그 내부에는 生産 system, 流通 system, 土地利用 system, 情報管理 system이 존재한다.

이상의 組織構成을 한 例로서 원예부문의 產地 system을 想定하여 그 개요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地域農業振興協議會의 中心 事務局 機能은 農協이 主體的으로 擔當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그림 5 > 產地시스템 모델



V. 結 語

企業者活動을 A.H.Cole 의 정의에 따르면 「革新」뿐만 아니라 「變化에의 適應」 「經營管理」의 3 가지 요소를 지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혁신 뿐만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조직의 형성 즉 組織革新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企業者活動을 농업에 있어서 가능케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사실 현대산업 사회는 조직사회, 정보사회, 지식사회 등으로 표현되는 바와같이 급격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어 변화·발전·혁신 등이라는 價値觀이 높게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는 既存의 인 — 原子論的(Atomitic) 인 零細分散小農이라는 體系를 그대로 답습하며 上記한 Innovation 과는 거리가 먼 限界에 傾斜되어 왔다. 그러나 農業에 있어서도 그 自體의 존속·발전을 위해서는 經濟機會에 대응하여 企業者的 對應(主體의이며 積極的인 對應)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商業的 家族經營群을 광범위하게 성립케 하면서 이들의 經營行動으로서 Innovation의 追求 — 企業者活動을 전개하도록 촉구하는 일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바로 농업에 있어서의 經營主體(그 實體로서의 Entrepreneurship) 形成問題인 것이다. 동시에 商業的 家族經營群의 성립·발전을 위해서는 마을을 中心으로 하여 이를 보강·보완하는 생산(자)조직이, 또한 이를 보완하는 지역농업의 system化가 體系的으로 重層化될 필요가 있다. 달리 말하면 企業者活動은 農業의 組織化를 촉진하게 된다 함이다. 서론에서도 지적된 바와같이 농업에 있어서도 컴퓨터 時代에 직면하여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分擔과 綜合이라는 工業的手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문제이다. 이에 따라 個別合理性和 地域合理性을 調和시킬 수 있는 「農業의 地域的 運營」이라는 地域農業의 system化를 한 方法論으로써 提起시켜 볼 수 있을 것이다. 地域農業의 組織化 問題는 產地間競爭에 따른 共同販賣體制, 產地 marketing의 高度化라는 次元에서도 바라지고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Summary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Regional Agriculture

by Kang, Kyung-sun

(1)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a country is explained by many-sided organization called "individual enterprise \rightleftharpoons industrial component". The application of the organization to agriculture will become of "individual agriculture producer \rightleftharpoons agricultural component \rightleftharpoons national economy," the character of which shows that the agricultural component of its middle component will become weaker. The result will bring about "national economy \rightarrow individual agriculture producers' organization directly. As the result of the tendency, the district for increasing agriculture output will incline. So "the subjective formation production of agriculture managers \rightarrow the real formation of agricultural component" organization needs an approach like bottom-up.

(2) Because Korean agriculture faces the social division of labour, it should search for a metamorphose as a new developing step. The purpose is to form entrepreneurship as the subject of the management through the formation of a commercial management group for family agricultural management. To do so, we could consider many-sided organization not only systemizing district agriculture but also supplementing cooperative groups for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urther agricultural production system.

(3) To promote the above-mentioned system, primary cooperatives should carry out their secretariat function under their influence. At the same time,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Committee, which a local self-governing body, an agricultural agency and representatives of producers take part in commonly, should be formed. The committee will integrate and share functions with each other, becoming a main body to promote regional agricultural systematization.